

vol.
306

2022.
October

오늘의 도서관

기록의 흔적

이것은 문자이기 전에 그림에 가까웠다. 서로가 맺은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맺은 이에 게만 통하는 언어학적 기호였다. 모두가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나와 내가 영원히 남기고픈 마음이었고, 하늘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그래서 후대에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여겨졌다. 해석이 어려웠고, 의미 없는 끄적임으로 치부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고대 유물을 연구했던 한 언어학연구원에 의해 유물이 발견된 후 10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합리적 추론이 가능해졌다. 이 문자들은 그리스어의 원형이며, 임신한 여성이나 여신을 뜻하는 말 'IQEKURJA', 어머니 또는 여신을 뜻하는 말 'IQE', 빛나는 어머니 또는 여신을 뜻하는 말 'QEPAJE(또는 IQE-PHAE)' 등임이 밝혀진 것이다. 그렇게 문자는 생기고 진화했다. 말이 아닌 눈으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기록문화를 낳았고, 이제는 문자가 한순간 휘발되는 말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 다양한 글이 되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곤 한다.

기록의 흔적



월간<오늘의 도서관>은 누리집(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서관

vol. **306**
2022. 10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기록매체박물관

| 표지 이야기 |

100여 년 만에 풀린 미스터리, 파이스토스 원반

그리스 파이스토스에 있는 미노아 문명의 궁전에서 발굴된 구운 점토 원반이다. 제작 연대는 청동기시대로 추측되며, 지름 약 15cm 원반에 나선형으로 기호들이 찍혀 있다. 줄곧 해독 불능으로 여겨졌지만, 한 언어학연구원에 의해 이것이 '임신한 여성, 어머니, 여신에 대한 기도문'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우리는 이 기록의 흔적을 통해 풍요로움의 염원과 이를 기록하려 했던 태초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파이스토스 원반'의 진품은 그리스 이라클리오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 제32권 제8호 통권 306호

발행일 2022년 9월 30일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167-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김윤, 손효림, 송재술, 김승정, 박수영

편집 이정화 todaylibrary@korea.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6331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

제호 강병인 디자인·제작 P31 02-3141-2760



10

Contents

늘 서재

- 04 오늘의 칼럼**
토론의 장, 도서관
'2022 WLIC 참관기'
- 06 자료 보존 이야기**
작곡가 고(故) 황문평 선생의 유품
한국의 대중문화와 함께 도서관에 잠들다
- 10 장서 속 인물들**
<동인지문사록> 최해
자료의 가치와 보물문화재로 지정된 현황
- 14 사서는 독서 중**
교양 지식을 쌓기 좋은 추천 도서

오늘의 도서관 10월호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 블로그** blog.naver.com/diblibrary1004
-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
- 페이스북** 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
- 유튜브** 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

열린 도서관

- 18 나를 키운 도서관**
김예지 작가와 안산중앙도서관
항상 곁에 존재하고 있었어
- 22 해외 도서관 랜선 투어**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모든 삶을 사랑하는 도서관
호주 도서관
- 26 도서관 트렌드**
더 깊이 있고, 더 특별한 공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의 다양한 얼굴
'특화 도서관'

북 라운지

- 30 오늘의 만남**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는 한글처럼
방송인이자 역사학자 정재환
- 34 우리가 사랑한 작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자유
수전 손택
- 38 독립서점 산책**
포항 독립서점 '달팽이책방'
느리지만 늘 가까이
- 42 책 읽어드립니다**
김훈 <하얼빈>
인간 안중근의 내면을 들여다보다
- 46 꺼내 먹는 책**
에세이 <보통날의 식탁>
시간을 먹고 자라난 향기, 더덕구이
- 48 책 듣는 시간**
앤디 위어 소설 <마션>
화성 탐사대원이 선택한 플레이리스트

도서관 소식

-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 58 웹툰-국립중앙도서관 이용백서**
국제표준이름식별자 ISNI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l.or.kr

토론의 장, 도서관 ‘2022 WLIC 참관기’

글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수해와 태풍으로 유난히 힘든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다. 지난여름 많은 피해를 입혔던 비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였다는데,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도 그 기록이 계속 경신될 것이라는 예측이 상당한 설득력으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지구온난화는 음모 아니냐는 농담 같은 진담을 앞으로는 절대 농담으로라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여느 국제 행사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던 2022 세계도서관 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WLIC)가 7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드디어 대면으로 열렸다. 국경을 넘나드는 여행이 이전만큼 자유롭지 않았고 일부 세션이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 까닭에 주최국에서는 1000여명 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하지만 96개국 총 1934명의 참가자가 현장에 모였으며, 500여 명의 온라인 참가자, 2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도서관 투어에 참여한 사서들까지 합하면 3000여 명이 예전 WLIC의 활기를 되찾는 데 동참했다.

전 세계 도서관인들의 축제와도 같은 WLIC의 성대한 귀환을 알리는 개막식에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 전 아일랜드 대통령의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지난 여름 수해의 아픈 기억과 함께 다시 떠올랐다. 로빈슨 전 대통령은 아일랜드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자 임기 이후에도 유엔 고등인권판무관 등을 역임하며 인권 분야 전문가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설립하고 각국 원로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NGO ‘The Elders’의 의장으로 기후 위기, 평화, 난민, 정의 등 지구촌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 중 한 사람이다. 이번 기조연설의 주제인 기후 위기에 대해 그녀는 그 안에 내포된 다섯 가지 불평 등 요소로 책임의 불평등, 성별의 불평등, 세대 간 불평등, 개발경로의 불평등, 자연의 불평등을 제시했다. 이들 난제는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인간의 역사를 돌아볼 때 극복되지 않은 어려움은 없었으며, 이 또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설파했다. 특히 도서관은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기능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를 논할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했다.

WLIC

그리고 보니 WLIC는 전 세계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논의의 축약판 같은 곳이었다. 자료 수집, 서지, 이용 서비스 등 도서관 분야의 전통적인 지식과 기술은 물론이고, 도서관의 성과와 영향력 측정, 마케팅, 도서관에 도입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윤리적 고찰, 도시재생과 도서관 건축, 지역사회와 도서관, 도서관이 주도하는 기후 행동, 소수자를 포용하는 도서관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도서관에 관한 모든 주제가 WLIC 기간 동안 뜨겁게 논의되었다. 기억에 남는 몇 가지 토론들을 떠올려본다. 각국 도서관의 성과와 영향력 측정 시도는 그것이 개별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과 동시에 도서관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나침반 같은 역할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일원으로서 정부 차원의 바람직한 평가도구 개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이었다. 도서관 운영의 효율화 혹은 이용 서비스의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논의는 사생활 침해, 알고리즘과 결합된 무의식적 편향성, 이용자와 사서의 관계 변화, 사서의 역할 고민 등 첨단 정보기술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도서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이미 활발하게 진행 중임을 보여주었다.

여러 실용적인 주제에 관한 토론 이외에 주목할 만한 것은 국립도서관 분과가 진행한 ‘국가장서의 정의’에 대한 논의였다. 대부분 납본과 자국에 관한 장서 수집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도서관의 장서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하는 토론에서, 타국의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과 반환 문제 등이 주제로 제시되었다. 민감한 사안인 데다 할당된 시간도 짧아서 각국 사례를 간단히 나누는 정도로 마무리되긴 했으나, 이런 문제가 꼭 외교적 협상 테이블이 아니더라도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심도 깊은 토론과 이해당사자가 아닌 국가들의 공감을 도서관의 장에서도 이끌어낼 가능성을 보았다.

우리의 도서관이 독서, 학습 등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뿐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문화를 즐기고, 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는 곳으로 자리 잡는 지 오래다. 나아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다양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토론의 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❶

작곡가 고(故) 황문평 선생의 유품

한국의 대중문화와 함께 도서관에 잠들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황문평 선생의 유품들.

아카이브(archive)는 특정 분야의 공공 기록이나 역사 기록이 보존된 자료실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대중음악과 방송 쪽은 체계적인 아카이브는 고사하고 1차 자료조차 접하기 힘든 실정이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국은 디지털 방식 전환 이후 사정이 나아졌지만 1990년대 초반 이전에 제작된 방송 자료는 거의 보존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이미지, 남진, 나훈아 등 우리 대중가요를 대표하는 가수들의 전성기 영상조차 도서관 개 정도 남아 있을 정도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에 보존된 황문평 선생의 유품은 한국 대중문화사에서 대단한 가치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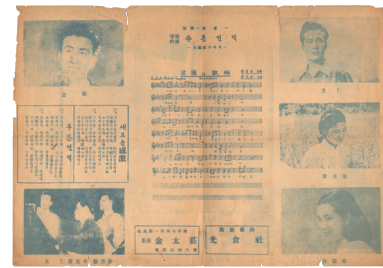
글 최규성 사진 최규성, 국립중앙도서관

양하게 수집해 관리할 수 있는 개인문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서 유품을 맡기게 됐다”고 말했다. 개인문고가 시작된 이래 대중가요 자료 기증은 처음이었다.

황문평은 어떤 인물일까?

황문평(본명 황해창)은 1920년 10월 23일 황해도 해주시에서 출생했다. 1942년 일본 오사카 음악학교를 졸업한 그는 1943년 국민개창운동을 위한 이동 연예대의 노래 지도원으로 뽑혀 압록강, 두만강까지 찾아다녔다. 1943년 잡지 <조광(朝光)>에 자작시 ‘묘향산 보현사’, ‘떨어진 능금’이 연속 당선되기도 했다. 한국무대예술원 음악위원장으로 활동했던 1948년에 가수 현인이 출연한 한국 최초 음악영화의 동명 주제가 ‘푸른 언덕’을 작곡했던 그는 이후 40여 년간 250여 편의 영화음악을 작곡하며 한국 영화 발전에 기여했다.

1952년부터 1954년까지 국방부 정훈국 군가제정위원으로 활동한 이후 악극단의 부흥에도 힘을 보탰다. KBS 전속악단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던 그는 1956년 HLKZ-TV(KBS의 전신)의 편성과장과 음악과장을 거치며 방송 발전에도 공헌했다. 이후에도 영화음악작곡가협회의 사무국장을 지냈고, KBS의 개국위원, 한국연예협회 이사장 등을 거치며 1960년대에 한국 영화와 대중가요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로 진출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1970년대에는 당시 가수 이성애를 일본에 진출시켜 현지에서 한국 가수가 처음으로



1948년 한국 최초의 음악 영화 <푸른 언덕> 주제가 가사지, 황문평 작곡.



황문평의 대표곡 ‘호반의 벤치’와 ‘빨간마후라’가 수록된 LP.

로 성공하는 데 일조했다. 공연윤리위원으로 활동했던 1989년 대중가수로는 처음으로 패티김과 이미지를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세웠다. 또한 대중문화계의 중요 요직을 두루 섭렵했고 1970~80년대 각 방송사 주최의 노래 경연대회에 황문평은 단골 심사위원으로 등장했다.

‘빨간마후라’ 등 수많은 명곡의 탄생

작곡가로도 수많은 작품을 남겼던 황문평 선생은 일본, 태국 등에서 취입했고 대만에서는 공군가로도 사용되었던 ‘빨간마후라’ 등 영화와 드라마 주제가 250여 편과 뮤지컬 600여 곡 등 850여 곡을 작곡했다. 그는 이미 1960년대에 한류를 동남아에 전파했던 선구적인 대중문화인이었다. 국가적인 중요 행사에서 불렀던 ‘꽃 중의 꽃’은 애국 가요로 애창되기도 했다. 애잔한 권혜경의 히트곡 ‘호반의 벤치’도 황문평이 남긴 명곡이다. 생전의 황문평은 TV와 라디오에 출연해 노래가 발표된 연도와 작사·작곡자, 가수를 정확히 기억해 대중음악 백과사전으로 통했다. 대중음악의 평론 분야를 개척했던 그는 오랫동안 한국 대중음악 역사의 기초자료로 각광받았던 <노래 100년사>, <가요 60년사>, <노래따라 세월따라>, <한국대중연예사>, <황문평 작곡집> 등을 저술했다. 또한 대중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아세아영화제음악상, 자랑스러운 서울시민상, 대중상 영화발전특별공로상 등 무수한 상을 받았다. 그리고 2004년 3월 13일 노환으로 84세에 세상을 떠난 뒤 국민훈장 동백장이 추서되었다.



황문평 개인문고에 있던 영화 사운드트랙 릴레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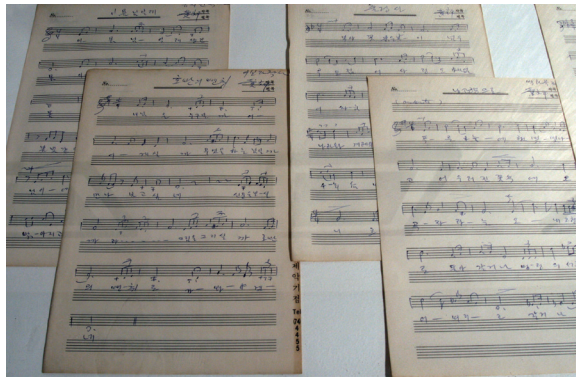
황문평 개인문고 유품 전시회 당시 전시됐던 기증 LP 음반들.

황문평 유품의 존재 가치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서 1950~60년대는 미개척지로 남아 있다. 광복 이전보다도 자료 보존이 빈약한 이 시기의 대중음악 연구와 발표된 노래들의 정확한 실체 찾기는 미지의 여행과도 같다. 실제로 1950~60년대 대중가요들은 작사, 작곡, 편곡, 연주자의 정보는 물론이고 발표 연도와 제작 음반사조차 불명확한 혼돈의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1948년부터 시작해 1990년대 초반까지 반세기 가깝게 한국 대중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중추적 활동을 벌였던 황문평 선생의 유품들은 그 존재 자체로 빛을 발한다. 그 시대를 증언하는 1차 자료들의 개체수가 매우 희귀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칼럼을 쓰기 위해 2007년 당시 국립중앙도서관 1층 전시장을 찾아 황문평 선생의 유품들을 직접 살펴본 인연이 있다. 하나하나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한국 대중음악과 영화 분야를 증언하는 소중한 자료들인지라 매우 흥분된 가운데 전시물들을 감상했던 기억이 현시점에서 되살아난다.

전시회는 유족이 기증한 2593점의 자료 중에서 엄선한 600여 점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인문고 설치에 앞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1층 전시실에는 고인이 생전에 남긴 음반, 저서, 릴테이프, 선생의 대표곡인 ‘빨간마후라’와 ‘꽃 중의 꽃’ 등의 친필 악보, 시대별 활동 사진, 각종 가요 공로상 트로피들이 공개되어 있었다. 단순한 음악인 개인의 자료가 아닌, 광복 이후 1948년부터 2000년대 이전까지 한국 대중문화의 발전 과정에 관여했던 고인의 소중한 자료들이었다. 특히 황문평의 악보를 통해서 는 1950년대 악극 전성기의 실제 형태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그는 1950년대 중반에 다양한 극단의 작가들과 협업했던 중요 작곡가였다. 선생의 트레이드마크였던 두꺼운 검은색 뽕테 안경이나 선생이 집필 작업을 했던 의자와 책상과의 만남도 애뜻했다.

자료 보존이 일천한 한국 대중문화 아카이브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황문평 선생의 유품들은 결코 흔하지 않은 한국 대중문화의 진귀한 유물들이다. 무엇보다 ‘빨간마후라’와 ‘꽃 중의 꽃’, ‘호반의 벤취’ 등 시대를 대표하는 황문평 선생의 대표곡들 친필 악보는 가장 소장 가치가 높은 유품들이다. 영화와 드라마 주제가 등 수많은 대표작들이 수록된 LP와 SP, 즉 유성기 음반에는 그의 숨결이 살아 있는 듯했다. 또한 근대 영화의 사운드트랙인 릴테이프, 시대별 사진, 저서 등도 가요 역사에 남을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이들 자료를 통하여 문화평론가 겸 작곡가인 황문평 선생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대중음악에 미친 영향과 발전을 재조명해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이 대중문화 아카이브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것은 예



황문평 친필 악보.



회갑을 맞은 생전의 황문평 선생 모습.

산도 문제이지만 대중문화 자료를 문화재로 보지 않았던 인식 부족 탓이 크다. 대중문화가 정치나 경제 못지않게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은 이미 한류, 특히 케이팝 열풍으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황문평 선생의 유품처럼 앞으로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작업을 병행하는 대중문화 아카이브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❶

❶ 최규성

한국대중가요연구소 대표이자 대중음악 자료 수집 연구가이다. <한국일보> 기자 출신으로 한국방송대상, 한국대중음악상, 서울드라마어워즈, 엠넷 MAMA, CJ AZIT 토포의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대중음악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다양한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중음악 관련 자료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대중가요 백과사전도 구축했으며, 저서로는 <KOREAN INDIE MUSICIAN PHOTOGRAPHS(최규성 사진집)>, <대중가요 LP 가이드북>, <골든 인디 컬렉션>, <뽕판의 전성시대> 등 다수가 있다.

작곡가 황문평 유품의 보존 처리 및 디지털화

작곡가 황문평의 기증 유품 중 음반 자료 1000여 점은 보존 처리 후 디지털화하여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 중이다. 기증 당시에는 유품의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아 스크래치와 음질 저하, 커버 훼손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음반의 먼지 및 이물질 등을 전문약품으로 세척하고 보존용 케이스로 교체해 보관 중이다. 또한 재생 장비 단종 및 재질 열화에 따른 정보 손실 위험에 대비하여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여 보존용 서버에 관리하고 있다.

보존 처리 및 디지털화 과정

보존 처리



❶ 약품 세척



❷ 건조



❸ 정전기 방지 커버 교체



❹ 보존 상자 보관

디지털화



❶ 녹음 소프트웨어 실행



❷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음원 확인 및 복원

국립중앙도서관은 2010년 국제도서관연맹 보존·복원 한국센터로 지정받아, 도서 자료뿐만 아니라 비도서를 보존·복원 처리하는 장비를 구축했다. 따라서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LP 등 아날로그 시청각 자료의 디지털화가 가능하며, 디지털화가 완료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용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

※ 자료 제공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

<동인지문사록>

최해

(1287~1340)

자료의 가치와
보물문화재로 지정된 현황

<동인지문사록(東人之文四六)>은 최해(崔澐, 1287~1340)가 선집한 신라와 고려의 변려문(駢儷文)을 모은 선집이다. 이를 선집한 최해는 최치원(崔致遠, 857~미상)의 후예이고 그의 부계는 향리의 중간층으로 몰락하였으나 몽골과의 항전 기간, 신분을 상승하였다. 그의 부친 최백륜(崔伯倫)은 예부시에 장원으로 급제할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최해도 16세에 국자감시에 합격하였고 다음 해에 예부시에 급제하였다. 최백륜은 최해를 문한직으로 추천하였으나 경쟁에서 실패하고 오히려 고란도로 유배하는 수모를 겪었다.

글 허흥식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동인지문사록>.

| 허흥식 |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경북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이탈리아 나폴리 동양대학교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레스(UCLA)에서 강의했으며, 베이징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활동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명예교수이다. 저서로는 <고려의 과거제도>, <고려 사회사연구>, <고려로 옮긴 인도의 등불> 등 다수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동인지문사록> 내지.



관기를 갖춘 재능과 좌절된 풍파의 생애

부친 최백륜은 유배에서 풀려났으나 최해는 17년 지나 원에서 할당된 고려인 3인이 시(試)하여 혼자만 급제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러나 최백륜은 재상에 오르지 못하고 작고하였으므로 아들인 최해는 순탄한 문한직으로 진급은 어려웠다. 성균관대사성에서 그가 바라던 문한직인 예문제학으로 나갔으나 다시 무고로 좌절되었다. 그를 무고한 자가 바로 환관이었고 원에 보내는 외교문서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관직을 떠나 신라로부터 고려에 이르는 역대 문집인 <동인지문>과 자신의 문집인 <농은집(農隱集)>을 정리하였다.

<동인지문>에서 사록의 특성

그는 가장 정성을 기울여 <동인지문> 가운데도 외교와 국내의 공고문인 사록에 집중하였다. <동인지문사록>은 그가 목표로 삼았던 문한관으로 두 번째 좌절을 당한 부분이었다고 그가 남긴 외교문서가 없으므로 <동문선>에 실리지 않은 부분도 바로 '사록'이었다. 그는 원과 고려 내의 문한을 실제로 참여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좌절되었고 이를 극복하려고 <동인지문사록>의 선집에 몰두하면서 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노렸다. 그가 재상에 이르지 못하고 좌절된 채 저술에만 힘쓴 까닭도 탁월한 문한관으로 국내외의 실용문의 연습을 <동인지문사록>의 증보로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마친 다음 해 6월에 54세로 작고함으로써 그의 생애는 마지막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증보한 <동인지문사록>만 가장 많은 분량인 5책 15권의 선집으로 남겼다고 하겠다.

'사록'이란 변려문이고 황하 유역에서 가장 일찍 정리한 시경(詩經)의 바탕을 이루는 4언과 양자강 유역의 초사(楚辭)가 바탕을 이룬 6언을 합쳐서 산문과 운문의 중간 형태로 종합하여 5세기 남조에서 완성된 문체를 말한다. 최해는 모든 글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당에서 완성된 오언시와 칠언지를 합쳐 오칠(五七)이라 부르고 사록(四六)과 산문인 천백(千百)으로 나누었다. 신라와 고려의 시문을 이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선집하고 <동인지문>이라 불렀다. '동인(東人)'이나 '동국(東國)'이란 서국의 당이나 송, 그리고 몽골제국에 대한 신라와 고려를 의미하였다. '문(文)'이란 최해가 급제한 예부시의 지공거였던 김태현(金台鉉, 1261~1330)도 <동국문감(東國文鑑)>이란 이름으로 역대의 시문을 선집하면서 사용한 말이다.



최치원 초상.(출처 : 공유마당)

東人之文 四六卷之十

<동국문감>에 이어 멀리 <동문선>으로

<동국문감>은 <동인지문>이나 조선 성종 때 서거정이 대표자로 완성한 <동문선>과도 상통하는 시문선집의 이름이었다. <동문선>은 이 가운데 가장 늦게 완성되었고 분량도 많아서 130권이다. 이색(李穡)은 고려 말기 김지(金祉)의 시문선집의 서문을 쓰면서 최해의 <동인지문>은 선별에서 엄정하였지만 전체는 <동국문감>보다 훨씬 분량이 적다고 밝혔다. <동인지문> 가운데 사록만 5책 15권이 전부가 현존한다. 오철은 3책 9권의 마지막 책만 앞뒤가 훼손된 잔권으로 전한다. <동문선>을 통하여 최해가 선집하였으나 없어진 <동인지문 천백>을 설정하면, <동인지문사록>을 통하여 김태현의 <동국문감>도 사록을 포함한 오칠과 천백으로 구분한 삼분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태현의 <동국문감>은 생존 시기와 좌주와 문생의 관계로 보아 <동인지문>과 밀접하다. 최해는 선별에 초점을 두었고 그가 추가한 작품이 의외로 적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존하는 최해의 <동인지문>은 <동국문감>이 현존하지 않아 가장 오래된 시문선집이란 영광을 누린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자료의 분량으로 보면 <동국문감>에서 <동문선>을 종착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동문선>이 가장 방대하지만 작가에 대한 전기나 작품의 제작연대를 적지 않게 밝혀 놓은 <동국문감>이 인용된 부분이나 <동인지문>의 가치는 낮춰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동국문감>이 현존하지 않는 빈자리가 더욱 돋보일 수도 있다.

산문인 <동인지문천백> 역시 현존하지 않고 <동국문감>과 함께 김지(金祉)의 <선수집(選粹集)>과 민안인(閔安仁)이 <동인지문> 이후의 작품을 수록하였다는 <속동인지문>도 모두 현존하지 않기에 <동문선>에 연결되고 실제로 문집을 남기지 못한 문인에 대한 접근은 현존하는 선집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동문선>의 위상이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인용된 <동문선>에도 전하지 않고 개인 문집도 없는 작가와 작품의 조각은 원석에 박혀있는 보석처럼 찬란하다. 최해의 <동인지문천백>은 잔권도 발견되지 않았고 현존하는 사록과 오칠이 이미 8책 24권이므로 그가 <줄고천백>에 남긴 <동인지문>의 서문에 25권이라 하였으므로 본래 <동인지문>은 모두가 9권 3책씩이고 천백만 7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동인지문사록>은 가장 방대하지만 본래는 <동인지문오칠>과 마찬가지로 3책 9권이었고 2년간 2책 6권을 보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0권부터 15권까지는 표(表)와 전(箋)과 장(狀)으로 시작하여 사소(詞疏)와 치어(致語)로 끝나므로 반복된 목차의 요소가 추가한 증거라고 하겠다.

<농은집>과 <줄고천백>과의 관계

현존하는 <줄고천백>은 간기까지 완전하지만 서문이 없다. 그의 문집에서 마지막에 실린 부분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동인지문>도 오칠과 사록과 천백 순서의 선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동인지문천백> 원본의 조각조차 현존하지 않는 현실에서 연구자의 끈기와 기다림을 요구한다. 최해 자신의 창작에 속하는 줄고의 오칠이나 사록의 원본은 조각조차 현존하지 않는다. 2권 1책의 <줄고천백>은 <농은집>의 마지막에 속하고 <동문선>에 전하는 33수의 오언과 칠언은 줄고의 첫머리에 실린 <줄고오칠>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짐작된다.

성현(成俔, 1439~1504)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도 <농은집>이 그의 문집이라 전하므로 <줄고오칠>이 나타나면 앞에는 그의 개인 문집인 <농은집>의 서문이 실렸을 가능성이 있다. <줄고천백>은 최해의 <동인지문>과 문집의 전모는 물론 생애를 이해할 내용이 많다. <줄고천백>과 <동인지문오칠>은 자신이 작품을 거의 연대순으로 수록하였고 <동인지문오칠>도 작가별 생존 순서로 실렸다는 순서의 공통점이 있다. 다만 <줄고천백>에는 32번째부

터 34번째까지 3항목이 몽골의 중서성에 보낸 서신이고 1325년과 다음 해까지 입성 논의를 중지시킨 한림학사(翰林學士)에게 감사하다는 서신이다. 이는 1337년에 지은 그의 글의 다음에 실렸으므로 같은 시기의 7번째 다음에 있어야 마땅하다.

<동인지문사록>의 현존과 보물 지정

최해는 동국의 역대 시문을 오칠과 사록과 천백 순서 편제인 <동인지문>뿐 아니라 자신의 문집인 <농은집>에도 줄고가 마지막으로 실렸다고 짐작된다. 사록은 국가에서 외국으로 보내거나 수도와 지방에 알리는 공시하는 외교문서나 개경과 지방에 시행과 관련된 공시문이었다. 사록은 보내는 작가와 받는 수신자가 뚜렷하지만 부처나 공자, 그리고 신령과 같은 현존하지 않는 대상도 있어 이를 신봉하는 백성에게 알리는 내용이다. 사록은 고운을 연구(聯句)처럼 사용하여 운치와 품격이 강하므로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이다. 최해가 선집한 <동인지문사록>은 1346년 쓴 <동인지문서>에서 모두 25권이라 하였다. 그러나 2년 후에 보충한 사록만 합쳐도 5책 15권이다. 현존하는 사록은 1책은 3권씩이고 권 7~9권 1책만 없었지만 후에 발견되어 모두가 국가보물문화재로 731~6호까지 지정되었다. <동인지문>은 최해의 선집이고 고대로부터 자신의 시대까지 <동국문감>과 그 밖에 국가에서 보존한 개인 문집과 개인이 모았던 오언과 칠언의 사인 오칠, 외교의 표와 책봉의 책문(冊文) 교서(중략) 악어(樂語) 상량문 배신표장, 시와 사록을 제외한 모든 산문용 천백이라 하였고 엄선하였다. <동인지문>에서 천백은 분량과 내용에서 가장 적은 분량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최해는 자신의 시문도 같은 삼분법으로 정리한 듯하다. 다만 <동인지문>은 본래 각각 3책 각 3권으로 모두 27권이었으나 산문인 천백이 2권이 모자라는 7권이었다고 추측된다. 또한 2년간 증보한 사록이 2책 6권이 늘어난 부분은 표에서 치어(致語)까지 수록하였음이 확인된다. <동문선>에는 더욱 세분하여 분류하였지만 오칠과 사록과 천백의 순서로 수록하는 원칙은 김태현이 세운 것을 최해가 그대로 답습한 느낌이 있다. <동인지문사록>과 <동인지문오칠>의 잔본은 1354~1355년에 복주와 진주에서 판각되었고 모두가 보물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줄고천백>만 일본에 전하므로 제외되었다. 문한관으로 전범을 보이려던 그의 <동인지문사록>만이 전국의 중요한 도서관에 보관되었고 합치면 전부가 복원된다. 이는 보존되고 중복되는 부분조차 모두 보물로 지정되었으므로 그가 이룩하지 못한 꿈이 찬란하게 빛나는 참으로 기이한 보답이라 하겠다. ❶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동인지문사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동인지문사록>이 보관되어 있는 모습.

교양 지식을 쌓기 좋은 추천 도서

글 국립중앙도서관 사진 각 출판사

• 한국문학

(남자친구인) 구와 내가 매일 함께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 사이가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64쪽)



유령의 마음으로

임선우 지음
민음사 | 2022

사서의 추천 글

‘나와 똑같이 생긴 유령이 나타나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읽어 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해파리로 변해 간다면?’ 임선우 단편집 <유령의 마음으로>에는 유령, 변종 해파리, 나무가 된 남자 등이 출몰한다. 이들은 모두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버티다 죽어버린 마음을 안고 산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기이한 일들로 인해, 현실의 무게에 눌려 자신에 대한 이해를 잃어가던 인물들이 환상적인 존재들을 매개로 타인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평범한 일상에 가려 숨겨져 있던 내면 깊숙한 마음을 자각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 반복되는 일상에 매몰된 사람들, 막막한 현실을 버티고 견디는 사람들, 그러다 지친 사람들에게 이들의 이야기는 위로이자 응원으로 다가올 것이다.

📖 저자 소개 - 임선우

199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19년 《문학사상》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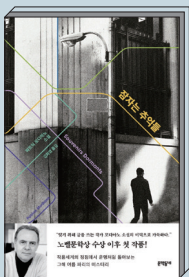
<허구의 전서관> 설혜원 | 2022

<백의 그림자> 황정은 | 2022

<애쓰지 않아도> 최은영 | 2022

• 미국문학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과 사물들이 연이어 사라져버린다 해도 하나의 고정점이 남아 있는 것이었다. 준비에르 달람. 피에라, 카트르파주가 5번지. (61쪽)



잠자는 추억들

파트릭 모디아노 지음
김화영 옮김 | 문학동네 | 2022

사서의 추천 글

잠자고 있던 추억들은 어떤 계기로 깨어날까? 특유의 아련한 분위기로 한국 독자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파트릭 모디아노의 <잠자는 추억들>은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다. 작가는 과거 스치듯 만난 사람들과 그 시절의 드문드문 기억들, 그리고 우연히 연루된 사망 사건을 되짚어가며 추억과 삶을 이야기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연관되었던 사람들과 사물들은 연이어 사라져가지만, 특정 이름, 장소, 거리, 카페, 책 등은 잠자는 추억을 되살리는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 새로운 추억들을 끌어당기며 이야기를 완성해 간다. 잠자는 추억을 깨우는 구심점들은 때론 몰랐던 숨은 길을 안내해 주는 신호들처럼 반짝거리지만, 어떤 구심점에는 섬뜩함, 불안함이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하다. 망각 속에 있는 기억을 모아보고, 해체하고, 정리해 보는 여정을 떠나고 싶은 독자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통해 신비로운 경험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소개 - 파트릭 모디아노(Patrick Modiano)

프랑스 현대문학의 거장이다. 1978년에는 <여두운 상점들의 거리>로 프랑스의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공쿠르상을, 2014년에는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주요 작품으로 <추억을 완성하기 위하여>, <신혼여행>,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등이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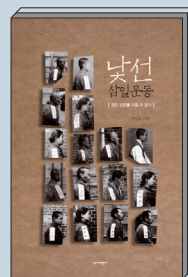
<불안한 사람들> 프레드릭 베크만 | 2021

<추억 수리 공장> 이시이 도모히코 | 2020

<넬라의 비밀 약방> 사라 페너 | 2022

• 인문예술

만약 33인의 독립선언만 있고 방방곡곡에서 그에 호응한 만세시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의 큰 조직사건에 그쳤을 것이다. (중략) 33인의 ‘자임(自任)’을 추인하여 명실상부한 ‘대표’로 만든 것은 나라 안팎의 만세시위였다. 33인은 만세시위 참여자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참여자를 잘 모른다. 참여 민중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73쪽)



낮선 삼일운동

정병욱 지음
역사비평사 | 2022

사서의 추천 글

보통 삼일운동이라고 하면 널리 알려진 유관순 열사, 민족대표 33인 등이 떠오른다. 이들은 당시 교육을 받은 엘리트층으로, 삼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 소수의 지식인에 속한다. 역사는 대체로 지배층 또는 지식인들의 시각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민중의 이야기는 잘 다루지 않는데,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삼일운동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민중들을 부각시켰다. 민중들의 삼일운동에 관한 사건기록이나 판결문에는 ‘남이 시켜서’, ‘모르고’ 등의 이유를 들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스무 살의 직공 황인수처럼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조선 민족이 만세를 부르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며, 이를 억압하는 것은 세계평화를 망치는 것이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알려지지 않은 삼일운동의 주역들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을 역사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학생, 연구자에게 추천한다.

📖 저자 소개 - 정병욱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 <식민지 불온열전>으로 2014년 지훈과학상을 수상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3월 1일의 밤> 권보드래 | 2019

<1919 : 대한민국의 첫 번째 봄> 박찬승 | 2019

<3·1운동 100년 역사의 현장(1-2)> 동아일보 특별취재팀 | 2020

• 인문예술

온돌을 깔았으니 신을 벗고 바닥에 눕거나 앉는 일이 보편화되었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 집의 가구들은 작고 옮기기가 편한 것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308쪽)



가구, 집을 갖추다

김지수 지음
싱긋 | 2022

사서의 추천 글

집 꾸미기 열풍이 불고 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재택 경제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럼 이 열풍은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쇠퇴하는 것일까? 작가는 아니라고 답한다. 현재 홈 리빙 열풍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제야 자기 취향을 찾는 문화가 도래한 데서 기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극히 사적인 공간인 집을 자신의 취향대로 꾸미고 관리한다는 것은 ‘나만의 작은 문명’을 만드는 일이자 ‘개인이 주체가 되는 문화’를 누리는 것이다. 또한 홈 리빙 문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했는지를 살피다 보면 그 변화와 흥망성쇠가 당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 리빙 문화는 사람과 관계된 풍속의 사연이 고여 있고 역사의 낱앗이 숨겨져 있는 인문학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이 가을, 나만의 작은 문명을 만들고 내가 주체가 되는 문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 저자 소개 - 김지수

(주)메스티지데코의 대표이사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CSO로 일하고 있다. <여성동아>, <엘르>, <리빙센스> 등 각종 여성지와 리빙지, 주요 일간지 등에 인터뷰와 기고를 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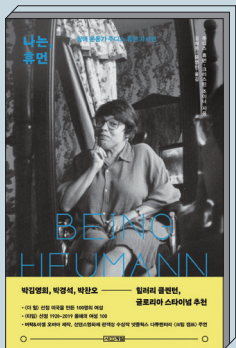
<공간의 미래> 유현준 | 2021

<앉지 마세요 앉으세요> 김진우 | 2021

<명품 가구 40> 최경원 | 2021

• 사회과학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종락)
당신이 일터에서 우리를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곳에 접근할 수 없거나 고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54쪽)



나는, 휴먼

주디스 휴먼, 크리스틴 조이너 지음
김채원, 문영민 옮김 | 사계절 | 2022

사서의 추천 글

2021년 기준 국민 20명 중 1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일터에서는 장애인을 보기 어려울까? <나는, 휴먼>은 장애인 인권운동가 주디스 휴먼의 자서전이다. 생후 18개월에 겪은 소아 마비로 장애를 갖게 된 주디스는 교육과 취업 현장에서 분리와 배제를 경험한다.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화재 위험 요인이라며 유치원 입학이 거부되었고, 장애를 이유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며 교사 면허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주디스 휴먼은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분리와 배제에 맞서 싸웠다.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교사 면허를 취득했고, ‘재활법 504조’ 서명을 이끌었으며, 1990년 미국 장애인법을 제정하기까지 투쟁의 최전선에 섰다. 주디스 휴먼의 이야기는 장애가 의료적으로 ‘고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장애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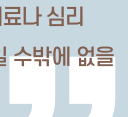
👤 저자 소개 - 주디스 휴먼(Judith E. Heumann)
미국의 장애인 인권 운동가. 1980년 세계장애인기구를 설립하고, 클린턴 행정부의 특수교육 및 재활 서비스국 차관보(1993~2001년), 세계은행 장애와 개발 자문위원(2002~2006년), 오바마 행정부의 국제 장애인 인권에 관한 특별 보좌관(2010~2017년)을 역임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이런 말, 나만 불편해?> 김효진 | 2022
- <휠체어 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 어맨다 레덕 | 2021
- <지금이 나는 더 행복하다> 박경석 | 2013

• 사회과학

비정규직일수록, 저임금일수록, 여성일수록 더 불안했고 더 우울했다. 불안과 우울을 가중하는 사회적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약물 치료나 심리상담 같은 개인적 개입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70쪽)



숨을 참다

김종진, 박내현, 박점규, 박혜리, 변정윤, 송경동, 시야, 연정, 이다혜, 이병희, 정슬기, 정윤영, 정창조, 하명희, 최정 지음
휴머니티스 | 2022

사서의 추천 글

이 책은 ‘긱 경제(Gig Economy,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 상황)’ 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었던 여러 어려움을 인터뷰를 통해 보여준다. 직접 고용되어 일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휴업수당, 고용유지 지원금 등의 사회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상실 또는 실업을 혹독하게 겪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이들이 겪은 고통은 단지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며 구조적인 문제이다. 책의 2부에 해당하는 ‘현장 분석’에서 팬데믹 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여온 한국사회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어느 정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나게 된 지금, 조용히 얹은 숨을 참던 이들이 다음 위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재난의 위험을 혼자 견뎌낸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 저자 소개 - 김종진
김종진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청년유니온,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며 정책자문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감정노동의 시대, 누구를 위한 감정인가>(공저, 2017) 등이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인종, 국민, 계급> 에티엔 발리바르, 이매뉴얼 월러스틴 | 2022
-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전해원 | 2021
- <민낯들> 오찬호 | 2022

• 자연과학

수는 전반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녔다. 수는 세계를 여는 열쇠이다. (6쪽)



경이로운 수 이야기

알브레히트 보이텔슈파허 지음
전대호 옮김 | 해리복스 | 2022

사서의 추천 글

수학에만 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 속에는 수가 산재해 있다. 이 책은 39가지 수의 수학적 속성뿐만 아니라 인류가 수를 받아들이고 사용한 역사에서 비롯된 인문·사회·과학 분야 등의 수학 외적인 이야기도 함께 소개한다. 13일의 금요일 등의 표현에서 보듯 13이 불길한 숫자로 간주된 것은 조화로운 수인 12 다음의 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3은 천적을 피해 13년을 주기로 살아가는 매미에게 긍정적인 숫자이기도 하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0, 1과 같은 작은 단위의 수부터 큰 단위의 수를, 후반부에서는 조금은 생소한 허수나 오일러수e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수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대중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고 있다. 피타고라스는 세계를 가능하게, 살아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존재의 근본 기반은 수”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 주위의 무수한 수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 저자 소개 - 알브레히트 보이텔슈파허(Albrecht Beutelspacher)
기센대학교 이산수학 명예교수이자 세계 최초의 수학 박물관 마테마티쿰(Mathematikum)의 관장이다. 주요 저서로 <생활 속 수학의 기적>, <퍼즐로 즐겨워지는 사고력 수학>, <수학 파티> 등이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세상을 이해하는 아름다운 수학 공식> 크리스 워킹 | 2021
- <기묘한 수학책> 데이비드 달링, 아그니조 배너지 | 2022
- <수학의 이유> 이언 스튜어트 | 2022

• 자연과학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지평이 과학과 함께 확대되면서 다차원적인 시각을 담은 예술이 함께 탄생하게 된 것이다. ... 늘 정답이라고 생각되던 것들이 때로는 유일한 정답이 아닐 때가 있다. 수백 년간 모두가 따라왔던 규칙이 깨지는 순간 놀라운 미술이 시작되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이다. (233쪽)



마음챙김 미술관

김소울 지음
타인의사유 | 2022

사서의 추천 글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다면 마음챙김 미술관으로 가보자. 마음이 힘들 때 나를 추스르려면 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미술치료 전문가인 저자는 이 책의 목적을 “그림을 판단 없이 붓으로써 나의 마음을 좀 더 분명하게 알아버리고,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인생에서의 선택과 인간관계, 인간의 자기 파괴적 특성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도슨트가 설명하는 그림을 감상하듯 그림에 숨겨져 있는 화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인식의 전환이 마음챙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일은 곧 덜 불행해지는 연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 정답을 강요하는 삶에 지친 사람들, 이 책으로 쉬어가길 바란다.

👤 저자 소개 - 김소울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겸임교수, 가천대학교 조형예술대학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플로리다마음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마음을 보는 아이그림>, <그림으로 그리는 마음 일기장> 등의 저·역서가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미술이 어떻게 마음을 다루는가> 김소울, 김모라, 윤현아, 김소라, 유혜숙 | 2021
- <명화 감상 미술치료> 정여주 | 2021
- <미술이라는 거울> Pat B. Allen | 2020

김예지 작가와

안산중앙도서관

항상 곁에 존재하고 있었어



ㅣ 김예지 ㅣ

청소년 일을 하면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이야기하며
편한 것보단 조금은 불편해도 신념이 있는 곳을 향해 가
는 것을 좋아한다.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시다>, <저 청
소일 하는데요> 등을 집필했고 <청소년을 위한 개념 있
는 언어생활>,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 등의 책에 그림
을 그렸다.



학창 시절부터 줄곧 도서관을 다녀왔던 걸 새삼 알게 됐다. 책
을 그리 가까이한 청소년은 아니었지만, 친구들과 시험기간을
명분으로 다니기에 좋은 장소가 도서관이었고,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지역의 여러 도서관을 다녔더랬다. 어느 날은 내가 사
는 동네의 도서관에서 친구들을 만나 공부를 하고, 다른 날은
친구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으로 내가 찾아가는 식으로 번갈아
가며 동네 도서관들을 이용했다.

글 김예지 사진 김예지, 안산중앙도서관

그 시절 나는 동네마다 위치한 도서관을 꽤 잘 알고 있었고, 도서관 방문
은 재수생 시절까지 이어졌지만 대학을 합격한 이후 차츰 지역 도서관과
는 거리가 멀어졌다. 대학에 이미 더 좋은 도서관이 있기도 했고 지역 도
서관에서 더는 공부를 해야 할 명분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성인이 돼 취미에도 없던 독서가 차츰 나의 물망에 올라 책을 가
까이하게 되면서 다시 지역 도서관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예전과는 다른
목적으로 말이다. 산책을 빌미 삼아 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리기도 하고,
작업을 하다 마음이 갑갑하면 트여 있는 도서관을 찾아 안정을 찾기도
했다. 그렇게 내가 나고 자란 이 지역의 도서관들은 나와 함께 성장하기
도, 낙후되기도 혹은 새롭게 탄생하기도 했다.

책을 읽으러 갑니다

나는 책을 가까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나마 읽었던 책들이라
면 그림책이나 만화책 혹은 수필 정도로 독서 편식이 심한 사람이
었다. 이 책들도 많은 양을 즐기는 편은 아니었기에 독서를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그러다 보니 재수생을 거
쳐 대학생이 됐을 땐 지역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는 일이 없었다.
예전처럼 공부를 위해 갈 필요도 없었고 책을 가까이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니 더는 도서관은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장소가 돼
버린 것이다.

그런 도서관이 다시 나의 삶에 들어온 것은 20대 중반이었다. 대
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를 한 후, 프리랜서로 전향했
던 나는 다시 작업할 장소가 필요해졌다. 예전에는 시험공부를 위
해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했던 학생 김예지는 성인이 되어 글과 그
림 작업을 위해 도서관 열람실을 다시 찾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프리랜서로 자리를 잡고 작업실을 얻게 되면서 다시 도서관은 나
의 삶에서 멀어져 갔다.

잠시 어떠한 목적으로 공간을 내어주다 사라지길 반복한 도서관
과의 관계. 그런 도서관과 다시 깊은 인연이 시작된 것은 내가 책
을 내고 난 이후였다. 그때부터 독서라는 매력에 정말 깊게 빠지게
되었다. 책을 내는 사람으로서 평생 만나온 책들보다 더 많은 책
을 만날 기회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독서라는 행위가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나는 많
은 책을 품고 있는 도서관을 오로지 '독서'라는 목적으로 향하게
됐다.

오랜만에 들른 지역 도서관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하고 안락
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어떤 도서관들은 지나온 세월만큼 낙후돼
있었고, 재정비를 통해 좀 더 다듬어진 곳도 있었고, 아니면 아예
새롭게 지어진 도서관들도 보였다. 이제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자
전거를 타고 도서관에 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골라 읽으며 한
동안 그 장소에 머물다 오곤 한다.

최애 도서관이 생기다

한 지역에 몇 개의 도서관이 있는지 통계를 찾아보지 않아 짐작할
수 없지만, 외진 지역이 아니고서야 대부분의 도시에는 수십 개의
지역 도서관이 있다. 내가 사는 안산시만 해도 지역구로 나눠보면
거의 3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존재하니 말이다. 거기
서 주로 이용했던 도서관을 추려보면 3개 정도인데 각각의 사연이
담긴 곳들이다. 처음으로 이용한 감골도서관은 학창 시절 주로 공
부하기 위해 이용했던 공간으로 1997년 지어진, 나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도서관이었다. 그래서인지 당시 도서관의 시설은
많이 낙후돼 있거나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성포도서관은 독립을 하며 이사한 동네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이
곳도 감골도서관과 같은 1997년생이다. 학창 시절 시험기간에 함
께 공부하던 친구가 살던 동네여서 몇 번 이용했던 도서관이었는
데 그런 곳을 이렇게 다시 오게 될 줄이야! 성포도서관은 지금도
자주 애용하는 동네 도서관으로, 지은 지는 꽤 됐지만 재정비를
잘해 둔 덕에 묘한 구석은 있어도 (허름하지만 말끔해) 나름 매력
적인 공간으로 잘 이용하고 있다. 성포도서관 문헌정보자료실에
새로 생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도 꽤 매력적이고, 2층에 재정비
된 디지털자료실은 카페같이 고즈넉하게 잘 단장해 놓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오래 이용해 보려 버리고 있다.



1. 안산중앙도서관 외부 전경.
2. 2층 문헌정보자료실 도서 전시 코너.
3. 2층 문헌정보자료실 서가 모습.

독서를 차츰 가까이하다 보니 동네 도서관들을 이용할 일들이 다 시 늘어나게 됐고 자연스럽게 가장 좋아하는 도서관도 생기게 됐는데, 바로 2006년에 지어진 안산에서 가장 큰 시설을 자랑하는 안산중앙도서관이다. 처음 이 도서관을 이용하게 된 계기는 그 당시 빌리고자 했던 책 대여가 가능한 곳이 안산중앙도서관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난생처음 그 책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게 되었고, 첫 만남에 나는 이 도서관에 반해 버렸다.

내가 이 도서관을 가장 좋아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쾌적하고 넓은 시설 때문이다. 내가 다녔던 도서관들은 산자락 어딘가에 조그맣게 숨어 있어 마치 숨바꼭질하는 듯했고, 규모도 귀여울 정도로 다소 작은 곳들이었다. 반면 하천과 공원을 낀 안산중앙도서관은 아주 컸고 당당하게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어느 도서관보다 채광이 좋았다. 무엇보다 안산중앙도서관은 문헌정보자료실이 크고 넓고 쾌적하여 이용할 때 왠지 모르게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기분이 든다. 아마 그 이유는 읽을 수 있는 책이 더 많아진 기분이라 그런 것 같다.



안산중앙도서관

안산시민의 독서 진흥을 위해 2006년 7월에 개관했다.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 기능을 다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자책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비하며 최첨단 디지털도서관 환경을 구축했다.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14(고잔동)
☎ 전화 : 031-481-2702
🕒 운영 시간 : 문헌정보자료실 (주중) 오전 9시~오후 10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디지털자료실/어린이열람실 오전 9시~오후 6시
열람실 (주중) 오전 7시~오후 10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국경일 및 공휴일



두 번째 이유는 도서관을 둘러싼 울창한 공원과 큰 하천이다. 책과 자연이 잘 어울리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잘 꾸려놓은 책과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니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는가! 읽고 싶은 책을 한아름 빌려 공원 벤치에 앉아 한가롭게 독서를 하고 싶다면 옛날 신선놀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을 만큼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워진다. 도시락을 싸온 날에는 한창 독서에 열을 올리다 배고픈 배를 부여잡고 도서관 뒤 하천이 보이는 벤치로 향한다. 한가롭게 카약을 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샌드위치를 먹을 때면 “아 이 도서관은 정말이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중얼거리게 된다. 나의 교양과 휴식을 단박에 책임지는 곳이라니. 안산중앙도서관을 나의 최애 도서관으로 마음을 굳히기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들이 넘쳐난다.

그 자체로 ‘쉼’

어느 순간 도서관은 내 삶에 작은 쉼터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딱히 할 일 없는 날 편한 복장으로 집을 나서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들르게 되는 부담 없는 장소.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 장소에 가면 왠지 도심과 분리된 아주 고요하고 침착한 자연으로 들어간 기분이 자주 든다.

대부분 도서관이 공원이나 인근 산 근처에 꼭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일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곳에 가면 이상하게도 요동치던 마음이 항상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그런 이유로 가끔 일상에서 평온

한 쉼을 가지고 싶을 때 도서관을 찾게 된다. 조용한 서가에 들어서 오래된 책의 냄새에 파묻혀 나만의 고요하고 깊은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다음의 일상들을 또 잘 살아갈 자신이 생겨난다.

한동안 도서관은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간을 빌려 쓰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일상에서 마음이 쉬고 싶을 때 언제나 공간을 내어주는 곳으로 변모해 있었다. 내 인생의 몇몇 시기마다 도서관이 내어주는 공간의 용도가 바뀌는 것을 보면, 그 자체만으로 내 삶에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는 곳인 것은 분명한 듯하다. 📖

1. 1층 어린이열람실에서 진행된 그림책 원화 전시 현장.
2. 3층 디지털자료실에서는 개별적으로 PC 사용이 가능하다.
3. 1층 어린이열람실의 잘 정돈된 서가와 테이블.
4. 유아 방문객을 위한 1층 유아열람실.
5. 김예지 작가가 집필한 저서들.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모든 삶을 사랑하는 도서관 호주 도서관

글 김윤아 사진 위키피디아, shutterstock

자기 계발이란 평범한 단어가 특별해지는 곳이 있다.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것과 그가 연결된 세상을 발견하게 하는 곳. 그 과정이 곧 계발이 되는 도서관은 다양성을 환영하며 서로 다른 성장 과정을 격려한다. 도서관에는 무엇이 있는가. 스스로 무한한 가능성을 깨닫는 순간 다른 존재, 모든 세상의 경이로움을 발견한다.

1. 도서관의 상징이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라 트로베(La Trobe) 열람실 모습.

ㅣ 김윤아 ㅣ

뉴욕, 런던, 파리, 리스본, 시카고 등 50여 곳의 해외 서점을 탐방한 기록을 담은 책 <서점 여행자의 노트>를 썼다. 다수의 매거진에 서점 여행을 주제로 한 칼럼을 기고했다. 종로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사진과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시한다.

STATE LIBRARY VICTORIA

0	1
State Library Victoria	

모두를 위한 하나의 도서관

빅토리아 주립 도서관

“알고 보니 도서관”이었다는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듣는 이곳. 멜버른 중앙역 근처에 위치해서 넓은 시민 광장 혹은 쾌적한 공원처럼 보인다. 잔 다르크(Jeanne d'Arc)와 성 조지(St. George)를 비롯한 역사적 인물의 조각상이 즐비하고, 주변에 놓인 대형 체스판과 버스킹 공연은 언제나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실제로 한 해 200만 명이 찾아오며 2018년 도서관 방문자 세계 4위에 이른 이곳은 빅토리아 주립 도서관(State Library Victoria)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찾아와 도시에서 가장 변화한 장소가 된, 마치 호주라는 나라와 닮은 도서관은 역사 또한 비슷하게 170년 전으로 거슬러 오른다.

1854년 설립되고 1856년 모두에게 개방된 도서관은 세계 최초의 무료 공립도서관 중 한 곳이다. 모든 시민을 위한 자기 계발의 장이 되길 바랐던 주지사 찰스 조셉(Charles Joseph)의 뜻으로, 지금도 도서관 공원 한편에 그를 기리는 동상이 있다. 개관 당시 박물관과 미술관이 함께 설립되어 한 세기가 넘도록 다양한 시대를 반영하는 건물과 장소로 채워져 왔으나, 두 곳이 모두 이전하면서 23개의 도서관 건물과 공원 부지로 남게 됐다. 덕분에 유구한 역사가 파노라마로 드러나는 시민 광장이자 도시 명소가 되었다.

그러나 시민을 비롯해 여행객이 도서관을 찾아오는 이유는 단지 도서관의 규모나 역사적 상징성 때문만은 아니다. 모든 민족과 문화에 공감하고, 모두의 취향과 영감이 공존하는 곳에서 나 또한 다양하고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달라서 어우러지고, 남달라서 특별해지는 도서관에서 자기 계발의 장(張)이 펼쳐진다.

도서관의 상징이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라 트로베(La Trobe)는 6개 층을 터서 높이와 지름이 35m에 달하는 열람실로, 1913년 지어졌을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동형 건물이었다. 반구형 유리 천장으로 쏟아지는 햇살 아래 책상들이 방사형으로 뻗어가는 풍경이 장관으로, 백만 권의 장서를 보관할 수 있고 5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도서관의 핵심 장소다. 도서관은 소장 자료와 보관 장소 또한 진귀한 볼거리다. 총 200만 권이 넘는 장서와 지도, 고문서를 포함해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에서 찰스 다윈(Charles



1. 도서관 동쪽 끝에 위치한 레이몬드 배리 리딩룸.
2. 시민 광장이자 도시 명소가 된 빅토리아 주립 도서관 앞마당의 모습.

Darwin), 패트릭 화이트(Patrick White) 등의 희귀 도서 컬렉션과 호주의 건국 역사 자료와 유물, 초상과 예술품들을 보존하고 있다. 갤러리는 총 세 곳으로 상시로 전시를 개최하며, 호주의 로빈 후드로 불리는 네드 캘리(Ned Kelly)의 금속 투구를 포함해 빅토리아 시대의 유물도 전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도서관의 매력은 공간의 서사에 있다. 한 세기를 넘기며 22번의 재건축으로 공원, 광장, 카페, 서점, 갤러리 등 다채로운 풍경으로 도서관을 그려왔고, 성소수자(LGBTQIA)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취향을 가진 방문객, 봉사자, 직원들이 오랜 시간 함께 즐거리를 적어왔다.

긴 시간 축적해 온 노력은 최근 VISION 2020으로 결실을 맺었다. 새로운 시대로의 확장과 변화를 위한 프로젝트는 공공 공간은 40%, 공용 좌석은 70% 늘리는 데 성공했다. 네 가지 섹션으로 기획한 공간도 선보였는데, 스타트업과 비즈니스를 위한 'Idea', 콘퍼런스와 워크숍을 진행하는 'Conversation', 교육과 이벤트를 제공하는 'Create', 그리고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Children'이다. 총 8800만 달러의 예산 중 2800만 달러가 자선 활동 기금으로 모아져서,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보여줬다.

프로젝트 기간에만 200개 이상의 컨설팅 세션이 열렸는데, 전문 기관은 물론 각계각층의 시민과 청소년, 어린이까지 참여한 결과 달리기 트랙, 동화책 성, 간이 주방과 작은 가족실도 갖춰졌다. 도서관은 호주부동산협회가 주최하는 2021 PCA 어워드에서 국가 혁신 및 유산 개발, 그리고 최고의 공공 건물상을 수상했다. VISION 2020 리모델링 후 한 매체는 “빅토리아 주립 도서관은 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관한 것임을 증명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광장을 지나 도서관 입구에 들어서면 자원봉사자들이 방문객을 위한 길 안내와 도서관 투어, 각각각색의 공간 활용 방법을 설명한다. 일요일마다 자유 연설과 여러 주제의 집회가 열리는 곳, 모두를 위한 한 곳이자 그 한 곳에서 모두가 공존하는 빅토리아 주립 도서관이다.

0	2
Bargoonga Nganjin, North Fitzroy Library	

많은 책 없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도서관

바군가 난진, 노스 피츠로이 도서관

녹음으로 둘러싸인 푸릇한 옥상 정원. 그 아래로 주방과 넓은 발코니, 영화 감상실과 건강 상담소가 있고, 야외 놀이터와 다양한 수업이 있는 곳. 동네 사람들 모두가 모이는 도서관의 이름은 바군가 난진, 노스 피츠로이 도서관(Bargoonga Nganjin, North Fitzroy Library)이다. 바군가 난진은 호주 원주민 우룬제리족의 언어로 '모두 모여라'를 의미한다.

모두를 향하고, 모두가 모이는 도서관은 2017년 개관했다. 당시 시의회는 '무엇이 좋은 도서관을 만드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그룹을 소집해서 회의를 나눈 끝에,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세웠다. '지속 가능한 공간인가?', '마을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가?', '지역사회를 돌볼 수 있는가?' 건축 설계의 핵심은 모두를 위한 포용성과 접근성에 두었다. 그렇게 마을에서 가장 활기차고 안전한 공간이 생겨났다.

도서관은 멜버른의 도심 교외 지역인 노스 피츠로이에 있다. 아라

(Yarra)시에 속한 이 지역은 본래 우룬제리족이 모여 살았던 곳이다. 1830년대부터 다양한 민족의 유입, 토지 강탈, 새로 퍼진 질병 탓에 우룬제리족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으나, 살아남은 부족은 가족과 이웃을 지키고, 전통과 역사를 보호해 왔다. 오늘날 피츠로이는 원주민들의 대표적인 사회 정치적 중심지로 불린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대로 함께 나아감. 이는 원주민과 이주민의 화해만이 아니다. 신구 세대의 화합에도,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도 필요하다. 마을은 도서관이라는 해답을 내놓았다. 모두가 모이는 도서관을 개관하며 시의회는 “신생아부터 노인, 그 사이의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며 “지역의 지속적 건강과 웰빙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도서관은 3층 규모로 지어졌고, 1층엔 가족을 위한 공간들이 있다. 어린이 놀이방과 야외 놀이터, 건강 상담실, 수유실을 비롯해 응급실까지 갖추고 있어서 영유아를 둔 가족도 편하게 머무를 수 있다. 2층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최대 150명이 들어가는 회의실을 비롯해 공용 주방과 테라스가 있다. 3층 옥상 정원에서는 산책로를 걷거나, 텃밭에서 자라는 다양한 허브와 과일을 요리 수업에서 활용하기도 한다.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환경을 담아내는 도서관은 잊지 않았다. 지속 가능성. 자연의 다양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 원주민의 언어로 모두 모이는 곳은 타인과 공존, 그리고 자연과 공생을 이뤄냈다. 도서관은 호주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에서 가장 높은 6-Star 등급을 획득했다. 햇빛과 지열을 활용한 에너지가 순환하게 하고, 빗물 집수 시스템 구축, 그리고 현지에서 조달해 온 재생 벽돌을 사용하는 등 건물의 수명, 주기, 활

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지역과 지구의 가치가 공존한다. 사회적 발자국으로 사회적 포용의 공간을 만든 도서관은 2018 멜버른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이보다 눈길을 끄는 건 유명한 도서관 커뮤니티 앱(librarything.com)이 이 도서관을 두고 한 줄 평으로 “지역의 새 도서관은 큰 건물이지만 책은 거의 없다”고 적은 것이다. 책 없이도 사람이 모여드는 도서관이 지난 9월 진행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호주의 다양한 젠더, 멜버른의 미래, 지속 가능한 건물에 대한 토의, 그리고 점심시간이다. 점심시간 프로그램은 버려질 위기에 놓인 농산물을 활용해 비건 음식을 만들고 함께 먹는 것이었다. 그들은 도서관을 두고 셰어하우스와 같다고 말한다. 동네가 집이 되고, 지구는 동네가 되는 도서관에서 자라는 것은 '우리 모두'이다. ⑤

호주 도서관 정보

01. 빅토리아 주립 도서관
(State Library Victoria)

🕒 오전 10시~오후 6시

📍 328 Swanston St, Melbourne VIC 3000

02. 바군가 난진, 노스 피츠로이 도서관
(Bargoonga Nganjin, North Fitzroy Library)

🕒 (월, 화,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수,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일요일) 오후 2시~오후 5시

📍 182 St Georges Road, North Fitzroy VIC 3068

3. 동네 주민들 모두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열람실의 모습. ©DRIVENxDESIGN
4. 녹음으로 둘러싸여 있어 휴식하기 좋은 옥상 정원의 모습. ©DRIVENxDESIGN



더 깊이 있고, 더 특별한 공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의 다양한 얼굴 ‘특화 도서관’

글 류민정 사진 각 도서관, 현대카드·현대커머셜 뉴스룸

단순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를 전문화하여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도서관’. 시대의 변화 속도만큼 이용자가 기대하는 도서관의 모습 또한 다양해지면서 도서관은 나날이 진화 중이다. 특화 도서관은 때로는 카페처럼, 때로는 갤러리처럼 다채로운 모습은 물론이고 음악, 4D 체험실, 웹툰, 요리 등 상상하지 못했던 전문 지식을 아우르며 도서관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 류민정 |
그림책 스토리텔링 교사이자 자유기고가이다. 주로 기업 사보와 각종 웹진에 인터뷰나 취재 원고를 쓴다. 아이들과 책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며, 취재로 만난 사람과 공간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쁨을 느낀다.

웹툰 도서관, K-웹툰의 길잡이가 되다

최근 인기를 끄는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 중 대부분은 ‘웹툰’이다. 웹툰은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보는 만화에 그치지 않고, 이제 대중 콘텐츠 시장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웹툰의 인기만큼 웹툰 작가나 제작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웹툰 특화 도서관이 마련됐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탕정온샘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특화도서관에 지난 2017년부터 3년 연속 웹툰 특화도서관으로 선정되면서, 기존 도서관과는 차별화된 특화 공간을 마련하고 다채로운 웹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웹툰 도서관답게 열람실 2층에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알려진 원작 웹툰 도서와 최신 웹툰 도서로 서가를 채웠다. 도서관 내에는 16인치 와콤 태블릿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웹툰 창작 코너도 마련되어 웹툰 작가를 꿈꾸는 많은 이들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창작 코너에서는 웹툰 프로그램은 물론, 지역 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대학생의 재능기부를 받아 멘토링도 운영한다. 최근에는 ‘나의 첫 디지털 일러스트 그리기’,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캐리커처 그리기’, ‘이참에 나도 여행작가’ 등 초등생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만화 특화 도서관은 상주시에도 생길 예정이다. 2023년 개관 예정인 상주시 ‘두드림시립도서관’은 만화 특화 공간을 포함해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상주시는 지역의 축제 기간에 맞춰 상설 만화 거리를 만드는 등 만화 특화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꾀할 예정이라고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다.

1. 탕정온샘도서관 전경.
2. 웹툰 도서로 채워져 있는 탕정온샘도서관의 서가.
3. 탕정온샘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도전 나도 웹툰작가’ 강좌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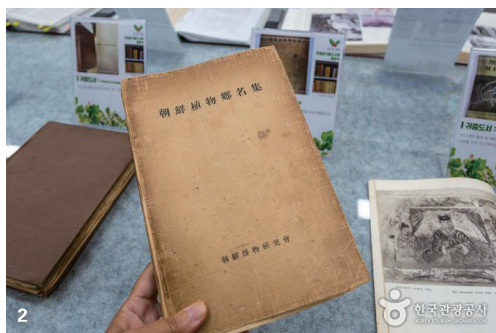
2

에코 트렌드

자연과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 도서관

기후 위기와 미래 먹거리에 관한 고민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맨발로 걸으며 땅과 접촉하는 어싱(earthing)이나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을 하는 플로깅(plogging)과 같은 에코 문화처럼, 이제 사람들은 환경오염을 대비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자신의 일상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단순히 자연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 환경을 대비하는 에코 도서관들이 있다.

먼저 충남 태안의 천리포수목원 내에 자리한 '민병갈식물도서관'은 식물 전문 도서관 1만 400여 권에 달하고 설립자의 식물 관리 일지를 포함한 진귀한 자료 3400여 권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다른 도서관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할 특별한 도서관을 만날 수 있는데, 1937년 외국 식물명을 한글 식물명으로 처음 정리한 <조선식물항명집>이나 1955년에 나온 우리말 최초 식물도감인 <한국식물도감> 초판본 등 교과서나 일반 상식으로는 알기 힘든 색다른 전문 지식이 가득하다. 특히 국내 최초 수목원이자 최다 식물 종을 보유한 천리포수목원은 그 자체만으로도 생생한 자료처럼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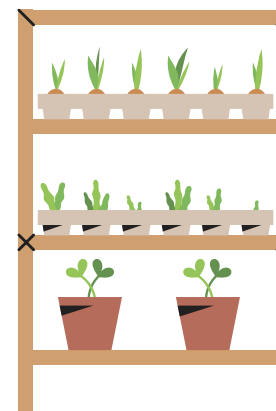


1. 식물 관련 자료를 소장한 민병갈식물도서관.
2. 외국 식물명을 한글 식물명으로 처음 정리한 <조선식물항명집>.
3. 민병갈식물도서관 전경.
4. 민병갈식물도서관을 품은 천리포수목원.



5,6. 토종씨앗 도서관에 전시된 씨앗과 작물들.

7. 현대카드에서 운영 중인 쿠킹라이브러리 전경.



인천 미추홀구에서 운영하는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내에는 독특한 도서관 두 곳이 공존하고 있다. 바로 '토종씨앗 도서관'과 '환경 도서관'이다. 토종씨앗 도서관은 우리 스스로 종자주권을 지키고 생물다양성 확보를 통해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힘을 기르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현재 64종의 토종 씨앗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재배를 통해 수량을 늘릴 계획이다. 계절마다 심기 좋은 토종 씨앗 나눔 행사와 씨앗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채종한 씨앗을 반납 받는 방식으로 씨앗을 늘려갈 예정이다. 비교적 작은 규모지만, 환경 지식을 채울 수 있는 '환경 도서관'은 업사이클, 생태계, 공정무역, 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의 기초, 전문 도서를 매년 새롭게 구비하며 자원 순환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특화 도서관과 에코 트렌드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카드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식재료를 주목하는 '쿠킹라이브러리'를 운영 중이다. 2017년 개관 이후 다양한 테마 전시를 선보이며 도서관과 체험 프로그램, 지식 제공을 동시에 이루고 있는 이곳에서는 주기적으로 도심 속에서는 접하기 힘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테마로 정한 뒤, 주방과 전시장, 도서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음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테마는 '뿌리채소로, 직접 채소를 키워볼 수 있는 가드닝 툴이나 다양한 요리들을 판매하며 익숙하지만 잘 몰랐던 식재료를 둘러싼 이야기를 담았다. 가장 익숙하지만 잊고 있던 자연의 세계를 담고, 미래 환경을 고민하는 에코 트렌드는 앞으로 더 다양한 특화 도서관을 만들어가는 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❷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는 한글처럼

방송인이자 역사학자

정재환 *Jung-Jaehwan*

1.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글문화연대 공동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성균관대학교의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방송에서 일을 많이 했고요. 한글 운동을 하다 보니 한글 관련한 책도 좀 썼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어를 좀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글 역사를 공부하고, 강단에서 한국사도 강의했습니다. 외부에서 특강을 할 때는 주로 한글 운동이나 한글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받아쓰기 중>, <한글의 시대를 열다>, <나라말이 사라진 날> 등의 책을 썼습니다.

2.

개그맨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교수, 강연가, 한글문화연대 대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분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웃기는 것을 좋아해서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고, 좀 유명해졌을 때는 방송 사회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어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평상시에 대화할 때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도 소통이 되지만 방송은 다르거든요. 시청자나 청취자를 대상으로 국어를 엉터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물할 것이 넘쳐나는 요즘과 달리, 종이학 1000마리로 마음을 표현하던 시절이 있었다. 밋밋했던 종이가 날개를 펴고, 뾰족한 학의 얼굴을 갖기까지, 만드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을 떠올린다. 한때 방송인 정재환도 그 대단한 선물의 주인공이었다. 애꿎는 팬심의 대상이었던 그가 어떻게 한글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 과정을 좇다 보면 화려했던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마치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한글을 닮았음을 알 수 있다.

진행 이혜민 사진 안호성

때부터 국어책을 거의 수집하시피 열심히 사서 읽기 시작했고, 책을 읽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글 사랑에 빠져 한글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한글 운동을 하다 보니 한글 공부도 다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에서 13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고, 초빙 교수로 10년 정도 있었습니니다. 공부를 깊이 하다 보니 방송에서는 저도 모르게 멀어진 거 같아요. 제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걸 좇아서 살다 보니 현재의 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삶에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 생각해요.

3.

미남 개그맨으로 유명하셨습니다. 개그맨으로 활동했을 당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8년 정도 무명 생활을 했는데 MBC <청춘행진곡>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스타가 됐죠. 그 이후에는 굉장히 바빴어요. 종이학 1000마리를 받은 적도 있고 공개방송이 끝나면 학생들이 방송국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몰려들기도 하고요. 한 번은 공연이 끝나서 차를 타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주위로 몰려서 차가 나가지 못하고 찌그러진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치지 않아서 참 다행스러웠죠. 그리고 한창 일이 많을 때는 부르는 데도 많고 제대로 쉴 틈이 없으니까 자동차 안에서 링거를 맞으며 가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젊은 분들은 실감을 못하더라고요.

[정재환]

방송인이자 역사학자. 과거 개그맨 겸 MC로 활동하다 30대 중반에 한글 사랑에 빠져 2000년에는 한글문화연대를 결성하고 우리말글 사랑운동에 뛰어들었다. 현재 방송 사회자이자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이며, <대한민국은 받아쓰기 중>, <나라말이 사라진 날> 등의 책을 펴냈다.

4.

오랜 무명 시절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조금 웃긴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운 좋게 1979년 MBC 방송국에서 데뷔를 한 거죠. 처음 데뷔했을 때는 3, 4개월만 열심히 하면 스타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데뷔 후 8년 정도를 무명으로 지냈는데, 이때 선배님들에게 많이 배우고 저 스스로도 대본 같은 것을 쓰면서 많이 공부할 수 있었어요. 당시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단막극장에 출연하게 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대본을 썼는데요. 제 대본으로 가수 이문세 씨, 노사연 씨, MC 김혜영 씨 같은 분들하고 연기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대본을 쓰기 위해 매주 방송국 안에 있는 도서관에 갔죠. 그때 거기서 한국 명작 단편, 세계 명작 단편 같은 것은 다 읽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 게 다 공부가 된 거죠. 그 당시 제 대본은 정극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을 만들어 청취자들을 웃기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대본을 작성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웃음의 기술이랄까, 그런 것을 터득하고 제가 성장을 한 거겠죠. 그래서 8년 만에 그래도 조금은 국민을 웃기는 수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5.

한글문화연대에서 하는 '한글 운동'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한글 운동'이라는 게 필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환경 운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글을 지키는 운동을 한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한글날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만드는 운동이 있었습니 다. 물론 저희 한글문화연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여러 한글 단체와 힘을 모아서 거리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원도 하고, 그렇게 여론과 민심을 모아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공공 언어 쉽게 쓰기'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 어리둥절했던 것이 '비말'이잖아요. 비말은 날리는 침방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공사장에는 '비산 먼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비산 먼지는 뭐지?' 이렇게 되거든요. 먼지가 날리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쉽게 바꿔 쓰는 것도 사실은 공공 언어 쉽게 쓰기에 들어가는 거고 또 '팬데믹'이라는 단어도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이라고 쓰는 게 맞다는 운동인 거죠.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좀 어렵거나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들은 국민 소통 차원에서 간결하고 명쾌하게 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공공 언어 쉽게 쓰기가 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나요?

공공 언어라는 것은 '누구나'에 해당하는 언어입니다. 학자들이 쓰는 논문은 전문 영역에서 생산되는 언어니까 관계자들 사이에서 잘 소통이 되면 되겠죠.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알리는 문서라든가 서울시나 정부에서 만드는 문서들은 공공 언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쉬운 말만 쓰자는 게 아니라 공공 언어에 한해서는 쉽고 명쾌해야 두루두루 소통이 잘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일단 공공 언어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도 '스마트하다'라든가 '햐셈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던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심화됐어요. 예를 들어 비상구는 재난 상황에서 비상구라고 적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엑시트(Exit)'라고 적혀 있거든요. 엑시트를 아는 사람은 살겠죠. 모르는 사람은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한 공공 언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단체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7.

뒤늦게 한글 사랑에 빠져 한글과 한국사에 대해 오랫동안 공부해 오셨습니다. 아직도 한글 사랑은 여전하신가요?

제가 마흔에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공부를 했네요. 그러나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다만 초심 그대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그때그때 제가 발견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글로 써서 전달하고 있어요. 저는 언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 삶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언어로 구성되거든요. 언어가 없으면 자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상대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서로 대화할 수도 없죠. 언어라는 것은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는 쉬운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문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한글은 정말 명품 문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배우고 사용하지만, 사실은 좋은 문자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글의 소중함을 한 번쯤 다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모르는 게 많으니까 공부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8.

학문 연구를 위해 도서관도 자주 찾으시나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곳은 집이고, 집 다음으로 편한 곳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집보다 도서관이 좋은 게 있죠. 책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도서관 신세를 많이

졌어요. 제가 석사논문을 쓸 당시에는 관련 자료를 찾느라 과거에 나왔던 종이 신문들을 직접 다 찾아서 읽어야 했어요. 그때 대학교 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지금은 도서관마다 디지털화가 잘되어 있어 인터넷으로도 원하는 자료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박사 논문 쓸 때, 북한 관련 자료를 찾느라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실을 들락날락했는데요. 국립중앙도서관 덕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

끝으로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오늘의 도서관>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우리말을 소중하게 아껴주시고, 우리말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글문화연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가 하는 한글 운동에 직접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마음으로 하나의 우주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데도 다 같이 우리말을 잘 알고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한글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재환 방송인 겸 역사학자의 인터뷰 영상은 국립중앙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자유

수전 손택(1933~2004)

1966년은 기묘한 해였다. 음악적 역량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비틀스(The Beatles)는 미국 콘서트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앞으로는 스튜디오 앨범 작업에만 매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밥 딜런(Bob Dylan)은 5월 17일에 영국 맨체스터 프리트레이드 홀에서 어쿠스틱 기타 대신 전기기타를 연주했고, 팬들은 딜런이 포크 음악을 배신했다며 야유를 보냈다. 그즈음 한때 밥 딜런과 공연을 같이했던 조안 바에즈(Joan Baez)는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과 함께 인권 시위에 나섰다. 그리고 이 해에 수전 손택(Susan Sontag)은 <해석에 반대한다(Against Interpretation)>를 펴냈다.

글 윤성근 사진 각 출판사, 위키피디아, shutterstock



Susan Sontag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진 어린 철학자

전기 작가 다니엘 슈라이버(Daniel Schreiber)는 평전 <수전 손택(Susan Sontag)>에서 훗날 탁월한 비평가로 활동하게 될 손택의 어린 시절을 호기심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시기로 표현했다. 어린 손택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가는 일이 드물었다. 동네 근처 사막에 난 돌길을 따라 걸으며 땅에 떨어진 예쁜 돌멩이를 주워 모으는 한편, 길을 잃거나 재난이 일어나 혼자 살아남는 상상도 자주 했다.

이런 성향은 자라면서 문학과 인문학자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있는 지치지 않는 동력이 되었다. 1950~60년대 청년 시절 손택은 세계에서 벌어지는 커다란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앞으로는 이념이라는 사슬이 사람들을 옴아맬 거라는 확신에 이르렀다. 여기서 이념은 사회적인 것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것이었다.

그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1966년에 펴낸 <해석에 반대한다>는 평론가와 대중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세계는 손택의 예상대로 더욱 복잡해졌다. 1967년은 혁명과 히피의 시대였다. 록 음악과 사이키델릭 문화가 유행했고 혁명가 체 게바라(Che Guevara)는 이 해 10월에 볼리비아 정부군에 사로잡혀 죽음을 당했다. 1968년엔 유럽에서 68혁명이 일어났고 다음 해엔 미국에서 최초의 우드스톡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자유가 필요하다는 수전 손택의 주장은 젊은 세대에게 큰 울림이 되었다.

현장으로 뛰어들어 삶을 배우다

손택은 글쓰기에만 머물지 않는 '행동하는 양심'의 진정한 표본이었다. 1968년 1월, 미국은 베트남전쟁에 쓸 자금을 모으기 위해 세금을 늘렸는데 손택을 포함한 여러 지식인은 전쟁을 위한 세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5월에 직접 베트남 하노이에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했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계속된 사라예보 포위전 때는 목숨을 걸고 모든 전력이 끊긴 도시로 들어갔다. 손택은 지옥과도 같은 이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En attendant Godot)>를 국립극장 무대에 올리는 일을 맡았다. 그는 오랫동안 포위된 도시에 머물면서 많은 강연을 했고 저격수의 표적이 될 위험을 무릅쓰며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 대화했다. 연극 공연을 마친 뒤 사라예보 시장은 손택을 명예시민으로 추대했다.

수전 손택은 입만 살아 있는 지식인이 되기를 거부했다. '직접 사건 현장에 들어가서 보지 않는다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생각은 1977년에 펴낸 에세이 <사진에 관하여(On Photography)>에 잘 드러난다. 여기서 손택은 "사진은 역사를 생략해 버린다"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주장을 펼친다. <해석에 반대한다>에 이어 더욱 깊고 날카롭게 단련된 손택의 비평 의식은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든 현장에서 배운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과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아 <사진에 관하여>는 1978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받았다.



1. 뉴욕 지성계의 여왕으로 불렸던 수전 손택의 초상화.
2. 사라예보 포위전 당시 사라예보 신문 빌딩의 모습.
3. 1966년에 발행된 <해석에 반대한다> 1쇄 원서 표지.



지칠 줄 모르는 손택의 활약은 모든 분야에서 계속됐다. 자신이 두 번이나 암 치료를 받았던 경험은 질병과 고통에 대한 통찰을 넓혔다. 1978년에 펴낸 책 <은유로서의 질병(Illness as Metaphor)>은 질병의 고통 속에 사는 많은 독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만년의 작품 <타인의 고통(Relating the Pain of Others)>에서는 관음증으로까지 변질한 다른 사람 혹은 공동체의 고통을 더는 소비하지 말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이는 전쟁마저 텔레비전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세대가 더 깊이 사유해 볼 점이다.

울타리를 거부한 자유인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수전 손택은 “너는 어느 쪽이냐”라는 질문을 평생 받으며 살았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어떤 단체나 이념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베트남전 반대 운동을 했을 때 손택을 공산주의자로 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1982년 집회 연설에서 “공산주의는 성공한 파시즘”이라고 말해 좌파의 비난을 받았다. “서구 백인 문명은 역사의 암과 같은 존재”라는 칼럼을 썼을 땐 우파의 사과 요청에 시달려야 했다.

1980년대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성소수자 운동 활동가들은 손택을 '레즈비언 작가'로 지목했다. 10대 시절부터 자신이 양성애자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기에 레즈비언 작가로 불

리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손택은 자신을 젠더의 테두리에 가두는 것 역시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를 추구하며 살았다. 심지어 비평가라는 이름도 싫어했다. 손택은 베스트셀러 소설 <화산의 연인(The Volcano Lover)>, 그리고 희곡 <앨리스, 깨어나지 않는 영혼(Alice in Bed)> 등 문학작품을 몇 편 썼다. 이런 작업에 오랫동안 흥미를 갖고 있던 그는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면 자신을 비평가가 아닌 소설가로 불러달라고 말했다.

손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20대 같았다고 말한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만년이 되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의지하며 사는데, 손택은 일흔에 가까운 나이에 도 언제나 모르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끊임없는 탐구와 자유정신을 기리는 의미로 미국서점협회는 2000년 손택에게 전미도서상을 수여했다. 이어서 2001년에는 예루살렘 국제 도서전에서 예루살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2004년 손택이 사망하자 사라예보 시장은 사라예보 국립극장 앞 광장을 '수전 손택 광장'으로 바꾸며 그가 과거에 이 도시를 위해 했던 값진 일을 기념했다. 평화와 자유를 향한 수전 손택의 일생은 여전히 많은 흔적으로 남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❸



1. 사라예보에 있는 수전 손택 광장의 모습.
2.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 공동묘지의 수전 손택 묘지.
3. 프랑스 파리에 있는 수전 손택 거리.

윤성근

개인 서점을 운영하며 작가로 활동 중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헌책방 기담 수집가>, <작은 책방 꾸리는 법>, <서점의 말들> 등이 있다.





독립서점 산책

포항 독립서점 ‘달팽이책방’

느리지만 늘 가까이

글 장성욱 사진 안호성

경북 포항시에 자리한 ‘달팽이책방’. 김미현 대표는 손님들과 머리를 맞대어 신문 형태의 독립 출판물 <달팽이 트리뷰>을 매달 발행한다. 동네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달팽이책방은 오늘도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밝은 미래를 그리며 나아간다.

달팽이책방 서점 내부 모습

고향에 독립서점을 오픈하다

학창 시절에 겪은 강렬한 인상은 기억에 오래 남아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경북 포항시에서 나고 자란 김미현 대표는 중고등학교 때 한 문화공간에서 음악을 배우며 성장했다. 당시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공간인지라 김 대표는 10대라는 나이에 문화공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게 됐다.

그 후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문화 관련 일을 해 오던 김 대표는 30대 여성으로서 사회적 지위와 불투명한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더 늦기 전에 나만의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이었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다름 아닌 책이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을 매개체로 서점이라는 문화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고향인 포항에 돌아와서 서점을 준비할 때 과거의 저처럼 문화공간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곳을 만들고 싶었어요. 지방에는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점을 플랫폼으로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는 문화공간인 달팽이책방을 만들게 되었어요.”

2014년 12월, 김 대표는 어릴 적 살던 남구 효자동 골목에 달팽이책방을 오픈했다. 서점 이름은 강렬함보다는 친근한 인상을 주기를 바랐고, 일상에 흔하면서 영어가 아닌 한글 이름으로 달팽이를 골랐다. 남들이 보기에는 느려 보이지만 자기 속도로 살아가는 달팽이의 모습이 김 대표는 마음에 들었다.

달팽이책방은 서점 이외에도 홍차 전문점, 전시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운영된다. 평소 커피보다 홍차를 선호하는 김 대표는 향기 좋은 다양한 홍차 종류를 판매한다. 예쁜 찻잔에 담아낸 홍차 한 잔은 손님들이 테이블에 앉아 독서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서점 안쪽에는 전시장이 마련돼 있어요. 이 공간을 책으로 가득 채울 수도 있지만, 서점을 열었을 때부터 책 이외에도 다른 분야의 문화예술 작품을 다루는 문화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전시장으로 꾸몄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데, 저희 서점에서 진행했던 클래스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해요. 작품 전시는 보통 한두 달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어요.”



손님과 함께 만드는 책방 신문

달팽이책방은 입구부터 남다르다. 서점 이름이 있어야 할 간판 자리에는 김 대표가 직접 그린 달팽이 그림이 걸려 있어 단번에 눈길을 끌며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낸다. 입구 아래 입간판에는 분필 글씨로 이 주의 행사 소식이 적혀 있고, 입구 주변으로는 김 대표가 애지중지 돌보는 식물들이 있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진다. 서점 내부는 꽤 넓은 편이다. 카운터는 입구 왼편에 있는데 그 앞으로는 잡지 매대와 판매하는 홍차 티백들이 진열되어 있다. 홍차는 종류가 다양한 편으로 김 대표에게 직접 추천받을 수도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오른편에는 가지런히 정돈된 일반 출판물 서가가 있고,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독서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돼 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독립 출판물과 굿즈 등을 판매하는 서가가 나오는데 규모가 상당하다. 책 수량도 일반 출판물과 비슷한 수준이며 평소에 구경하기 힘든 개성 있는 독립 출판물을 마음껏 둘러볼 수 있다. 그리고 왼편으로 실제 미술관을 옮겨놓은 듯한 아담한 전시 공간이 있어 여유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북 큐레이션은 김 대표가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의 책들로 이루어진다. 인문학 서적이 가장 많고 문학, 페미니즘, 사회과학, 생태, 문화예술 분야가 뒤를 잇는다. 타 서점에 비해 독립 출판물의 비중이 꽤 높은 편인데, 이는 독립 출판물이 성장할 때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졌던 김 대표의 애정이 반영된 결과이다.

달팽이책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이나 자체 기획을 통해 북 토크, 음악 공연, 워크숍, 원데이 클래스 등을 진행한다. 이 중에서 김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는 독서 모임이다. 책방에서 열리는 많은 행사가 유기적으로 얹혀 있는데, 독서 모임이 시

1. 달팽이책방 외부 전경. 달팽이 그림 간판이 인상적이다.
2. 입구 왼편 홍차와 잡지 매대가 있는 카운터의 모습.
3. <달팽이 트리뷰>을 들고 있는 달팽이책방 김미현 대표.
4. 달팽이책방에는 전시 공간이 있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5. 일반 출판물을 북 큐레이션한 서가 모습.



작점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가령 이런 식이에요.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는 책의 저자를 직접 서점에 모셔서 북 토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 멤버 중에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직접 원데이 클래스를 열거나 그분의 작품을 모아서 전시회를 여는 거죠. 그래서 달팽이책방에서는 독서 모임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의 열정이 높고 분위기도 남달라서 저뿐만 아니라 다들 만족하고 있어요.”

달팽이책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달팽이 트리뷰>이라는 독특한 독립 출판물이다. 달팽이책방에서 매월 발행하는 신문 형태의 독립 출판물로 책 리뷰, 대담, 칼럼, 인터뷰, 에세이 등 책과 서점에 관한 기사를 4면짜리 지면에 실는다. 2015년 4월에 1호를 시작으로 8년째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77호까지 발행된 상태이다. 기사 작성, 편집, 교정 및 디자인은 김 대표와 손님으로 구성된 기자들이 협업해 직접 만든다. 현재 <달팽이 트리뷰>은 500부를 인쇄해 전국의 약 14개 도시, 20개 서점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책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학습을 위한 용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처음에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책으로도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참여도가 낮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경주나 울산 등 근교에서 직접 와

주는 분들도 계실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자비를 써 가면서 만드는 신문이라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미안하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동네 책방이라는 정체성

포항시를 대표하는 서점이자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 묵묵히 힘써온 달팽이책방.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책 모임뿐 아니라 전시나 음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한편 지난 4년간 20대 여성 취업 준비생을 위한 도서 후원 이벤트 ‘달달박스’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4년간, 경제 사정으로 필요한 책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20대 여성 취업 준비생에게 책을 보내드리는 ‘달달박스’ 도서 후원 이벤트를 총 4회 진행했어요. 후원 신청을 받아 선정된 분들에게는 필요한 책과 ‘달달박스’를 응원하는 출판사와 독립 출판물 제작자가 후원한 기증 도서를 함께 보내드렸어요. 기부 방법과 선정 과정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도 꾸준히 도서 지원 활동을 하려고 해요.”

달팽이책방은 지난 8년간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 베테랑다운 서점의 모습을 이미 갖췄으나 더 나은 서점이 되기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는다. 포항시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책임감은 갖되 재미있는 일을 찾아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포항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시민커뮤니티·문화활동공간 삼세판’ 사업에 참가해 생태 분야 관련 문화 행사를 기획해 또 다른 재밌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저는 달팽이책방이 누구나 간편한 복장으로 동네 슈퍼 가듯이 드나들 수 있는 서점이 되었으면 해요. 거창한 의미가 있기보다는 골목에 있는 흔한 상점처럼 편한 동네 책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쌓고, 다양한 행사를 함께 진행하면서 서로 똑같이 성장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예정입니다.”



달팽이책방



영업시간

(화~금요일) 오후 1시~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1시~오후 6시, 월요일 휴무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길 10번길 32(효자동)

문의

070-7532-3316

@ www.instagram.com/bookshopsnail

김훈 <하얼빈> 인간 안중근의 내면을 들여다보다

글 남궁인 사진 출판사, shutterstock

이순신 일대기를 명징한 문장으로 옮긴 소설 <칼의 노래>를 쓴 김훈 작가가 이번에는 안중근의 생애를 다룬 소설 <하얼빈>으로 돌아왔다. 작가는 영웅 안중근의 모습이 아닌,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러 하얼빈으로 떠나는 인간 안중근의 내면에 집중한다. 그의 강렬한 단문은 여전히 빛나고, 인간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선은 이번 소설에 서도 유효하다.



Harbin

현재 진행형 작가, 김훈

김훈 작가를 존경한다. 부끄럽지만 가장 영향을 받은 작가를 물으면 그의 이름으로 답하곤 했다. 강렬한 단문, 의도된 단어 반복, 치밀한 조사 사용, 지적인 위트, 날카로운 대화문, 접속사를 아끼는 그의 문체는 충격적이었다. 무엇보다도 문장에 감정을 고스란히 담는 최단거리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많은 독서가들의 사랑을 받았다. 또한 글을 쓰는 문청에게는 경외의 대상이었으며 한국어 문장 자체에도 영향을 주었다. 나도 어쭙잖게 그의 문장을 흉내 내다 글을 쓰는 일로 이끌려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세계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의 대표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순신, 우륵 등의 역사 속 인물이나 조선의 천주교 박해, 병자호란 등의 역사적 사건을 장편소설로 다루는 작업이다. 두 번째는 현대를 배경으로 다양한 군상의 이야기를 단편소설로 다루

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여행기나 작가로서의 삶을 다룬 자전적 에세이가 있다. 세 가지 모두가 작가로서의 그의 자아를 구성하며 독자들에게도 매력이 충분한 작품들이다. 직전에 출간된 단편집 <저만치 혼자서>에서도 그는 여전히 세상의 소외된 이들을 비쳤다. 얼마 전까지도 산업 재해를 막기 위해 피켓을 들고 직접 거리로 나선 그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연민과 절제된 감정, 문장 세계가 독보적이다. 또 그가 인간에게 집중하고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의 최신작 <하얼빈>이 나왔다. 제목만으로도 첫 번째로 분류되는 작업의 결과임을 알 수 있는데, 한국인에게 하얼빈이라는 지명은 한 사건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대한민국의 안중근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쏘아 죽였다. 요약하자면 한 문장에 지나지 않는 사건이지만, 한 사람의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자 작가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만약은 없다>, <지독한 하루>, <제법 안온한 날들>,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공저) 등이 있다.

생애를 소모해 다른 생을 끊어버리는 일 이었고 이후의 역사적 파장 또한 엄청났다. <하얼빈>은 이러한 일대기를 다룰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역사 장편소설은 정약전의 일대기인 <흑산> 이후 11년 만인데, 그는 올해로 만 74세의 고령이다. ‘작가의 말’에서 그는 작년에 병을 한 차례 앓았고, 더 이상 미룬다면 이번 생에서 쓰지 못할 것 같아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힌다. 덕분에 우리는 그의 세계관 안에서 재창조된 안중근의 생을 볼 수 있다. 다시금 다행이다.



하얼빈으로 향하는 청년 안중근

사건을 설명하기에 앞서 역사적 궤적을 짚어보아야 한다. 1909년은 일본이 한국을 무력으로 병합하기 전이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엘리트 정치인으로 수상을 연임하다가 1906년 한국의 초대 통감으로 부임해서 한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다. 1909년은 그가 통감을 내려놓고 한일 합병 대담을 위해 러시아(당시 하얼빈은 러시아 실효 지배 영토였다)를 방문했을 때였다. 일본 본토에서는 한국을 빠른 시일 내에 합병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온건파에 가까웠다. 한국이 당장 병참기지가 되는 것보다 문화적으로 일본과 동화되면서 인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한일 합병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한국이 평화와 독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길은 제국의 틀안으로 순입하는 것이다”라며 장기적 식민지화를 꿈꿨다. 이때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한국 통치의 상징적 존재가 한국인의 손에 쓰러졌다. 또 한일 합병의 온건파는 그 세력을 완전히 잃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더 굴러간다. 이듬해 한국은 강경파에 의해 강제 합병된다. 민

족의 암흑기가 찾아왔지만 한국인은 격렬히 저항했다. 일본은 한국 대중의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고 중심을 잡아줄 정치인이 없었으며 군부와 우익이 득세해서 결국 서방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다. 그 전쟁의 패배로 1945년 한국은 독립한다. 과연 이토 히로부미가 살아있었다면? 복거일의 장편소설 <비명을 찾아서>는 이 대체 역사를 다룬다. 안중근이 암살에 실패했음을 가정한 미래에서는 여전히 한국은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인은 창씨개명된 이름으로 일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다.

서른한 살의 안중근은 이런 국제 정세를 내다본 것일까? 결과적으로 그는 구국의 영웅으로 이 순간에도 빛나고 있다. 작가의 말에는 “한국 청년 안중근은 그 시대 전체의 대세를 이루었던 세계사적 규모와 폭력과 야만성에 홀로 맞서 있었다. 그의 대의는 ‘동양 평화’였고, 그가 확보한 물리력은 권총 한 자루였다. 신탄 일곱 발이 쏘여진 탄창 한 개, 그리고 ‘강제로 빌린(혹은 빼앗은)’ 여비 백 루블이 전부였다”라고 그 앞에 놓였던 일을 묘사한다. 그의 나이 서른한 살이다. 고국에 닥친 위기와 역사

의 수레바퀴를 바꾸기 위해 고문과 사형을 각오하고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을 살해하러 하얼빈으로 가는 길이다. <하얼빈>의 열개는 이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다. “나는 안중근의 ‘대의’보다도, 신탄 일곱 발과 여비 백 루블을 지니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얼빈으로 향하는 그의 가난과 청춘과 그의 살아 있는 몸에 관하여 말하려 했다.”

김훈 언어로 들여다본 안중근의 내면

소설은 청년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시선에서 번갈아 진행되며 1909년 전후 인물들의 행적과 심리를 조명한다. 황해도 태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의병이 되었던 안중근이 그 역시 의병 소속이었던 우덕순을 허름한 술집에서 만나 “이토를 죽이자”고 결의하는 그 순간. 둘은 대의명분을 토론하지 않고 자금과 총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지만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세상에 맞서 둘의 목숨을 던지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말없이 기차에 오른 둘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경찰 조사에서 직업을 포수, 무직, 담배 팔이라고 적었다. 실제 그들은 강제로 빌린 백 루블이 아니었다면 차비조차 없었고, 목숨을 걸었지만 한국 땅에 처차식이 있었으며, 단서라고는 신문에서 오려낸 이토의 조그만 흑백사진뿐이었다. 어떤 세상이 찾아오면 그들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일까. 고작 100여 년 전 이 땅은 도대체 어떤 곳이었던 것일까.

그가 법정에서 한 발언은 아직도 나라와 주권을 잃은 국민에 대해 상기시킨다. 또 날카로운 대화로 재구성된 재판 기록은 김훈이라는 언어로 적혀 마음을 울린다. 안중근은 사살의 동기로 “이토는 통감으로 한국에 온 이래 태황제를 폐위시키

고 현 황제를 자기 부하처럼 부렸다. 또 타 국민을 죽이는 것을 영웅으로 알고 한국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십수만 한국 인민을 파리 죽이듯이 죽였다. 이토, 이자는 영웅이 아니다. 기회를 기다려 없애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하얼빈에서 기회를 얻었으므로 죽였다”라고 밝히며 “나는 한국 독립전쟁의 이병 참모총장 자격으로 하얼빈에서 이토를 죽였다. 그러므로 이 법정에 끌려 나온 것은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자객으로서 신문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항변한다. 우덕순 또한 경호가 많아 실패할 수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그것은 사람의 결심 하나로 되는 일이다. 결심이 확고하면 아무리 경호가 많아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안중근은 간수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는 옥중에서 많은 글을 남겼고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보물이 되었다. 사형 집행 전 그는 <안양철 역사>로 재판 직전까지의 일대기를 스스로 썼다. 그 뒤로 <동양평화론> 집필에 들어가 서문을 썼지만 겁먹은 일제에 의해 서둘러 사형이 집행된다. 그가 주장하는 동양 평화는 동양의 세 국가가 공동체를 결성해 자주적으로 서양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른한 살의 젊은이는 국권과 세계 질서를 고민했고 사형 집행 전 마지막 요청은 “동양 평화 만세”를 세 번 외치는 것이었다. 그는 사상가이자 위대한 독립투사였고 자신의 목숨으로 역사를 바꿔 후대에 영영 이름을 남긴 영웅이었다.

나는 생의 시기마다 그를 생각했다. 스무 살에 안중근은 아득했고 서른 살의 안중근은 불가해했다. 마흔 살인 지금의 안중근은 불우했던 역사 속 불세출의 영웅이지만 불가해한 것은 마찬가지다. 앞으로의 안중근도 끝없이 다르게 읽힐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김훈이 기록하는 안중근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존귀하다. ❶



안중근 ©국가보훈처



시간을 먹고 자란 향기 더덕구이

글 장성욱

에세이 <보통날의 식탁>, 한술 지음, 티라미수 더북

도시의 삶은 편리하다. 하지만 계절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할 만큼 바쁘게 흘러간다. 그렇기에 지친 몸과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풍요롭지만 허기진 도시 생활에 지친 저자는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간다. 손수 가꾼 식재료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식탁을 차리며 비로소 보통날의 가치를 깨닫는다. <보통날의 식탁>은 저자가 외갓집이 있는 경남 합천과 충북 음성군 오생리 집을 오가며 자연을 만나고 요리했던 3년여의 시간을 담았다.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했던 그녀가 지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소박하고 아름다운 사계절

식탁 일기를 쓴 셈이다. 화창한 어느 봄날, 저자는 봄나물과 오래된 더덕을 캐기 위해 외갓집 근처 할아버지의 밤나무 산을 오른다. 산 중턱 고사리밭을 지나 소나무가 많은 가파른 비탈에 심겨 있는 더덕. 팥이로 넝쿨 아래 땅을 살살 긁어내면 토실토실한 더덕 뿌리가 모습을 나타낸다. 뿌리가 자라도록 땅에 몇 년 묵혀 있는 동안 더덕은 흙 속에서 산의 기운을 받아들인다. 땅에서 바로 캔 더덕에서는 축축한 흙냄새와 더덕 특유의 “잎이나 줄기가 아닌 뿌리만이 품을 수 있는 짙고 깊은 향”이 난다.

산이 선물한 더덕을 맛보기 위해 저자는 더덕의 껍질을 까서 가볍게 두드려 편 다음, 고추장 양념을 발라 구운 후에 쌀밥 위에 얹어 한 입 먹는다. “참기름 향과 더덕의 짙은 향, 쌀밥의 단맛이 모두 한데 뒤엉키는” 더덕구이의 맛이란! “입맛을 돋우는 씹싸래하면서도 단맛”이 일품인 더덕을 맛본 그녀는 한자리에서 묵묵히 향기를 덧입혔을 더덕의 인내에 감탄한다. 그리고 지금도 적막한 산속에서 홀로 짙어지는 향을 품고 있을 더덕의 시간을 오래 음미한다. ❶

recipe

정 성 가 득 한 레 시 피



더
덕
구
이

향이 독특하고 섬유질이 풍부해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리는 더덕!
갓양념을 발라 노릇노릇 구워주면
씹는 맛이 훌륭한 더덕구이를 맛볼 수 있어요!

재료



❶ 더덕 480g



❷ 통깨 1큰술



❸ 식용유 1/2컵

유장

간장 1큰술, 참기름 2큰술

양념장

간장 1큰술, 고추장 1큰술, 고춧가루 2큰술, 설탕 1큰술, 물엿 1큰술, 참기름 1큰술, 다진 파 1큰술, 다진 마늘 1/2작은술, 깨소금 1/2작은술

01 더덕은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친 후에 껍질을 벗긴다.

02 반으로 가른 더덕을 부서지지 않게 방망이로 살살 두드린다.

03 만들어 둔 유장에 더덕을 10분 동안 재워둔다.

04 더덕을 팬에 올리고 약불로 2~3분간 굽는다.

05 구운 더덕에 양념장을 섞어 30분 정도 재워둔다.

06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약불로 다시 한번 2~3분간 굽는다.

07 구운 더덕을 접시에 담고 통깨를 뿌리면 더덕구이 완성!

Good! 양념 재우는 시간이 길면 양념이 깊게 배어 더욱 맛있어요!

앤디 위어 소설
<마션>

화성 탐사대원이 선택한 플레이리스트



SF 소설의 거장 아이작 아시모프와 로버트 A. 하인라인의 계보를 잇는 독창적이고 유쾌한 SF 소설 <마션>. 소설 속 주인공이자 식물학자인 마크 와트니 박사는 NASA 아레스 탐사대의 팀원이다. 그가 속한 아레스 3탐사대는 화성을 탐사하던 중 최대 시속 175킬로미터의 모래 폭풍을 만난다. 보통 화성 탐사대는 시속 150킬로미터의 모래 폭풍까지 대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화성은 아비규환이 된 상태. 아레스 3탐사대원들은 화성에 설치해둔 막사를 빠져나와 MAV (화성 상승선, Mars Ascent Vehicle)로 대피, 화성을 떠난다. 그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일이었지만 가까스로 성공한다. 단, 주인공 마크 와트니만 빼고.

글 조혜림 사진 출판사, 배급사, 위키피디아

마크 와트니의 낙천적이고 유쾌한
화성 생존기

화성 착륙으로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 같았던 그날은 마크 와트니 인생의 최악의 순간으로 바뀌었다. 우주복에서 울리는 산소 부족 경보를 듣고 깨어난 그는 이 화성에 홀로 남아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을 깨닫는다. 우주선 헤르메스나 지구와 교신할 방법도 없다. 그는 곧 질식사하거나 식량이 떨어져 굶어 죽을 것이다. 이제 그는 어떻게 화성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와트니는 곧바로 정신을 붙잡고 잠깐의 선외활동을 통해 외부 장비를 점검하고 보급품을 확인한다. 그리고 남은 식량과 산소, 물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일자를 계산한다. 그가 계산한 생존 가능 일자는 약 300~400일이다. 그는 자신이 식물학자라는 것을 되새기고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하며 자신을 화성으로 보낸 NASA의 쓸모를 증명하기 시작한다.

태양전지로 빛과 전기를 수급하고 화성의 흙에 자신과 동료들의 인분을 섞는다. 그리고 화성의 대기 95%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분리하는 산소 발생기, 하이드라진에 있는 수소에 불을 붙여 수소와 질소를 분리, 물 환원기를 통해 물을 생성해 낸다. 그리고는 통신 장치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다.

문과생인 나는 우주에 갈 일도 없겠지만, 우주에 가면 며칠 되지 않아 굶어 죽을 것이란 생각이 새삼스레 든다. 시를 쓰고 소설을 쓰며 자신의 삶을 비판하는 SF 비극을 창조하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 소설 <마션>은 감상적이고 잔잔한 문과생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시끌벅적 흥겨운 디스코 음악들로 소설이 끝날 때까지 단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스타일 넘치는 내용이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 <마션> 역시 SF 영화 중 가장 흥겹고 유쾌한 오락영화라 아닐 수 없다.

지구에서는 와트니의 장례식과 동시에 화성 재관측이 이뤄지고 있



화성에 홀로 남겨 된 주인공 마크 와트니.



<마션> 앤디 위어

었다. 이때 NASA 연구원 민디는 인공위성으로 와트니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NASA는 와트니와 교신할 방법과 보급품을 전달할 방법을 찾는다. 와트니는 화성 반대쪽에 묻혀 있던 통신 수단인 패스파인더를 찾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NASA와 통신을 시작한다. 또한 와트니의 생존 사실을 알게 된 아레스 3탐사대원들은 와트니를 구조하고자 헤르메스의 방향을 틀어 다시 화성으로 향한다.

화성에서 온 지기 스타더스트

데이비드 보위의 'Life on Mars?'

소설에는 아레스 3탐사대의 캡틴 루이스가 가져온 1970년대 음악들이 소개되는데, 와트니의 취향에는 전혀 맞지 않는 디스코 음악이 대부분이다. 그는 그중에서 자신의 상황과 끝내주게 어울리는 후보를 선정하는데, 그 곡은 데이비드 보위의 'Life on Mars?', 엘튼 존의 'Rocket Man', 길버트 오설리번의 'Alone Again', 비지스의



식물학자 와트니는 생존을 위해 감자를 심고 물을 생성해 낸다.

‘Stayin’ Alive’다.

캡틴 루이스가 선택한 곡들은 모두 우주, 그리고 와트니의 상황
에 꼭 맞는다. 특히 1970년대 글램록의 아이콘인 데이비드 보워
의 ‘Life on Mars?’는 제목부터 화성에서의 삶을 묻는 게 아닌가?
데이비드 보워는 1972년에 발표한 앨범 <The Rise And Fall Of
Ziggy Stardust And The Spiders From Mars(화성에서 온 지기
스타더스트와 거미들의 상승과 하강)>을 통해 지기 스타더스트라
는 자신의 페르소나를 창조했다. 그는 세상의 종말을 5년 앞두고
화성에서 날아온 외계인 팝 스타이자 로커이며 세상을 구하고 장
렬한 죽음을 맞이한다.

유독 우주와 관련된 곡을 많이 남긴 데이비드 보워가 사망했을 때
수많은 매체들은 지기 스타더스트가 다시 화성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물론 ‘Life on Mars?’의 화성은 황폐하고 우울하며 폭
력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녀에게 ‘이 지구는 화성이 아닐까?’
와 같은 메타포로 사용된다. 예컨대 황량하고 황폐한 화성에 홀로
외로이 고립된 와트니에게도 그곳은 유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영국의 팝 스타이자 피아니스트
엘튼 존.



1970년대 글램록의 아이콘
데이비드 보워.

가린은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미국의 닐 암스트
롱은 달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두 나라는 경쟁하듯 우주 개
발에 앞섰으나 ‘Rocket Man’이 발표된 1972년은 대중도 미디어도
이미 우주에 관심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래서였을까, 엘튼 존은
곡 안에서 지구에 있는 아내를 그리워하며 외로움을 느낀다. 그의
이러한 모습에서 국가적 영웅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서의
외로움과 쓸쓸함, 허무함이 가득 묻어난다.

엘튼 존의 곡처럼 우주에 홀로 남은 와트니는 타고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마구마구 발휘하지만 때때로 자신의 죽음에 대
해, 자살 방법에 대해, 혹은 영원한 혼자만의 삶에 대해 고민한다.
그것은 고립된 삶,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사무치는 불안이
만들어낸 고독이다. 그런 그의 마음은 이렇게 노래로 대변돼 소설
속을 흐른다.

지구를 구하는 영웅, 스타맨

데이비드 보워의 ‘Starman’

책과 달리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마션>에서는 아바의
‘Waterloo’, 데이비드 보워의 ‘Starman’이 메인 테마로 흐른다. 아
바의 ‘Waterloo’는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크게 패한 것처
럼 사랑에 실패하고 정신을 잃은 여자의 마음을 노래한다. 데이비
드 보워의 ‘Starman’은 지구를 구하려는 외계인이자 신, 예언자와
같은 존재 스타맨을 기다리는 곡이다. ‘Waterloo’ 속 나는 마치 화

성 정복에 실패한 아레스 3탐사대원들의 처지와 같고, 전 세계가
주목하며 지구로의 귀환을 기다리는 와트니는 스타맨과 같다. 와
트니는 인류의 희망이자 처음으로 화성에서 살아남은 영웅이다.
우리는 스타맨이 무사히 지구에 도착해 인류에게 진보와 과학, 수
세기 동안 꿈꾼 행성 간의 교류 등 밝은 미래를 증명하길 바란다.

인류가 우주를 향해 보내는

러브레터

한 도시가 지진으로 무너지면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구호
품을 보낸다. 이것은 어떤 문화권에서든 예외 없이 찾아
볼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이다.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는 나쁜 놈들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훨씬 더 많다. 덕분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었다. 멋지지 않은가?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
복한 날이다.

- 소설 <마션> 중에서

무인 보급품 수송선 발사 실패를 딛고 아레스 3탐사대원들의 선
회를 통해 마침내 구조된 와트니. 세상 사람들은 마크 와트니, 이
사람을 위해 모든 힘을 모았다. 그의 동료들은 1년 이상의 시간을
희생하며 그를 데리러 돌아갔고 NASA의 모든 연구원들은 식량
전달과 구조를 위해 밤을 새웠다. 무인 보급품 수송선이 파괴되어
천문학적인 돈이 날아가도 그들은 새로운 무인선 만들기를 멈추
지 않았다. 중국국가항천국은 수년 동안 매달린 프로젝트를 포기
하고 와트니를 구조할 추진 로켓을 내주었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인류와 과학을
향한 사랑이 느껴진다. 이것은 인류가 보내는 우주를 향한 한 편
의 열렬한 러브레터. 유쾌하고 낙천적이고 즐겁게 재난에 대처하
는 와트니의 모습은 그 어떤 책보다 더 희망과 사랑을 느끼게 한
다. 세상은 각박해지고 서로를 믿지 않지만 이 책은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인을 도우려는 본능, 사랑과 우정, 측은지심과 동정
을 가진 생물이란 걸 일깨워준다. 인간은 결국 선한 존재이지 않을
까 하는 희망과 믿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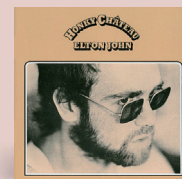
소설 <마션>은 과학을 사랑하는 마음과 인간을 향한 휴머니즘이
결합돼 삶에 대한 간절함을 이야기한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유
머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은 오직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❶

조혜림

음악 콘텐츠 기획자이자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집필한 저서
에는 <페이지스 7집 : 다시보기>가 있다.



데이비드 보워
‘Life on Mars?’ 듣기



엘튼 존
‘Rocket Man’ 듣기



길버트 오설리번
‘Alone Again’ 듣기



비지스
‘Stayin’ Alive’ 듣기



아바
‘Waterloo’ 듣기



데이비드 보워
‘Starman’ 듣기



news

국립중앙도서관

01

제16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 수상작 발표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6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책맹탈출클럽, 메타와 현실을 넘나들다’ 등 총 8편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올해 공모전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 등을 주제로 전국의 사서와 도서관 및 문화기관 종사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총 39편의 현장사례와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최우수상에는 게임적 요소를 결합시킨 독서 활동을 메타버스 도서관을 통해 운영한 영진전문대학교 도서관 사례가 선정되었다. 우수상 2편에는 서천도서관의 ‘서천 한 도시 모두 회원증 만들기 ‘서천X온책’ 사업 운영사례’와 파주시 위탁도서관의 ‘메타버스 정보활용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까? : 제페토를 활용한 정보활용교육 기획 협력사례’가 각각 선정되었으며, 장려상에는 서초구립내곡도서관의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가족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간 ‘랜선택놀이’ 등 5편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장려상에는 국립중앙도서관장상을 상금과 함께 수여한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 ● 도서관 소개 ● 도서관 소식 ● 공지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세미나 시 개최된다.

문의 기획총괄과 02-590-0799

02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근현대 자료 수집 본격화

올해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은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 관련 자료의 수집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및 러시아 중심에서 헝가리 및 튀르키예(구 터키)로 지역을 확대하여 근현대기 한국 자료 수집을 본격화한다. 가장 먼저 튀르키예와 헝가리를 지역 거점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기관에 소장된 근현대기 한국 관련 자료를 ▲ 현지 조사 및 발굴 ▲ 디지털화 수집 ▲ 해제 단계를 거쳐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발굴·수집되는 ‘오스만 튀르키예 고문서국’ 등 소장 자료는 국내 최초이자 국외에서도 거의 연구된 바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한반도를 중심으로 긴박하게 펼쳐진 동아시아 정세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튀르키예 자료의 경우 3중 번역(오스만어(아랍어로 표기된 튀르키예어) → 현대 튀르키예어 → 한국어 해제)을 거쳐 공개될 예정으로 언어장벽으로 자료 접근이 어려웠던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수교 33년을 맞이하는 헝가리는 1892년 조선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일원으로 남북한 관련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22년 헝가리 국립아카이브 내에 동아시아연구소가 설립되면서 한국 및 아시아 대상 연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헝가리를 거점국가로 지정 후, 비세그라드 그룹(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까지 수집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금년에 수집·해제되는 자료는 2023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을 통해 공개된다.

*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 소재한 오스만제국과 관련된 역사 자료를 모아놓은 기록원

문의 온라인자료과 02-590-0736



국립중앙도서관

03

‘2022년 청년 책의 해’ 맞이하여 특별 상영작 마련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 독립영화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영상위원회와 협업하여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에 독립영화 상영회를 개최하고 있다. 9월은 ‘2022년 청년 책의 해’를 기념하여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목요일에 청년 주제의 특별 상영작을 선보였다. ‘2022년 청년 책의 해’ 기념 상영작은 총 3편으로, <소공녀>(전고운 감독, 2018년 개봉작), <불빛 아래서>(조이예환 감독, 2019년 개봉작), <흔사 사는 사람들>(홍성은 감독, 2021년 개봉작) 순서로 상영회를 진행했다. 또한 청년 관련 독립영화를 찾아보고 싶은 이용자를 위해 도서관 누리집 영상자료 주제별 목록(자료검색 ● 영상자료 목록 ● 주제별 목록)에서 ‘독립영화가 그려낸 청년’ 목록도 함께 제공했으며 목록에 기재된 자료들은 도서관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영화 관람 신청은 상영회 2주 전 도서관 누리집(www.nl.go.kr 로그인 ● 신청·참여 ● 교육/문화 프로그램 ● 영화 상영)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지식정보서비스과 02-590-6302

04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제4회 미공소 축제 개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9월 2일(금)부터 9월 21일(수)까지 20일간 어린이와 온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2022년 제4회 미공소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운영되었다. 9월 3일(토)에 문화공연 및 자녀교육 관련 명사 초청 강연 등 개막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 밖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 자율주행 등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 나만의 자동차 만들기 똑딱상자, 디지털 시대 유망한 미래 직업을 알아보기 위한 전문가의 미래 직업 멘토링 등 어린이·청소년의 창의력과 사고력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02-3413-4815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하는

인디서울 2022

청년 책의 해
독립영화 상영회

소공녀
9월 1일 (목) 14시

망임피를 부탁해
9월 8일 (목) 14시

불빛 아래서
9월 15일 (목) 14시

아치여 노래, 정대춘
9월 22일 (목) 14시

흔사 사는 사람들
9월 29일 (목) 14시

상영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문화소강당

문의 : 문화정보 서비스과 02-590-6302
홈페이지 : www.nl.go.kr

2022년 9월 상영회 안내 배너 이미지.



홍보 포스터.

news

국립중앙도서관

05

국립세종도서관, 시민의 품으로 새롭게 다가간다

국립세종도서관이 8월 29일(월) 재개관했다. 지난 2021년 8월 1일(일)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해 휴관했던 국립세종도서관은 1년여 만에 전수 보강을 마친 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도서관 안전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아 다시 개관했다. 앞으로는 도서관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관리하기 위해 계측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서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람실 운영을 정상화한다. 또한 9월부터 11월까지 대상별 정기 강좌, 독서 동아리, 인문학 강좌 등 13개 강좌의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73회에 걸쳐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특히 10월 12일(수)에는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를 초청하여 그의 저서 <정재승의 과학콘서트>를 주제로 물리학 개념을 통해 복잡한 사회현상을 흥미롭게 다룰 예정이다. 이외에도 창작 공간의 확장 및 복합 독서 공간 조성에 변화를 주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계측시스템 : 철골 트러스 처짐을 실시간으로 계측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스템



국립세종도서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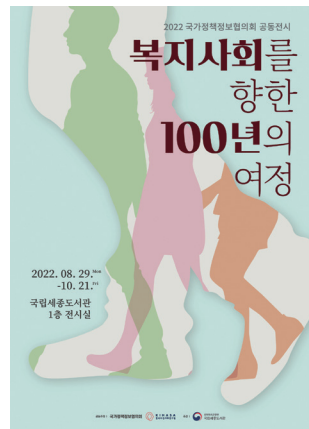
문의 국립세종도서관 기획관리과 044-900-9012

06

도서관에서 만나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의 발자취

국립세종도서관은 정책 기획 전시 ‘복지사회를 향한 100년의 여정’을 10월 21일(금)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정책 유관기관들의 협력망인 국가정책정보협회의 협력사업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공동 주최하였다. 우리나라 보건복지 100여 년의 역사를 조망하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요 복지정책과 현안들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전시에서는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정부 수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배경과 복지제도의 발전사에 대해 연대기순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시대별로 달라지는 가족계획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연령별 복지의 개선, 경제와 맞물린 정책 등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복지정책의 여정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준비한 풍부한 설명과 사진 자료, 실물 보고서와 동영상들도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밖에 장애인 보조 기구, 노인 돌봄 AI 인형, 전동기립형 휠체어 등 실생활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돌봄 기구들을 체험할 수 있다. 전시회에 마련된 다양한 정책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함께 해 온 보건복지의 발자취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전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

문의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 044-900-9062



전시 포스터.



07

국립세종도서관이 지역 아이들을 찾아갑니다

국립세종도서관은 세종시 소재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 ‘내 친구 도서관’을 운영한다. 올해 대상 기관은 ‘세종지역아동센터(조치원)’와 ‘대평공립 지역아동센터’로 9월부터 11월까지 기관당 10회씩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내 친구 도서관’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서 교육 전문가가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독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에게 독서의 여운을 남기고자 프로그램에 활용된 도서는 기증한다. 국립세종도서관은 ‘내 친구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간 연계를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 수행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내 친구 도서관’ 사업은 2017년부터 실시하여 2021년까지 총 7개 기관을 찾아간 바 있다.

문의 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이용과 044-900-9138



08

국립중앙도서관 책수레봉사단, 상하이희망도서관·성성호수도서관에 희망 도서 120권 나눔

국립중앙도서관 책수레봉사단은 2009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를 중심으로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 기증, 소장자료 정리, 도서관 시스템 교육 등의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월 17일(수)에는 올해 첫 번째로 중국 상하이 소재 ‘상하이희망도서관’에 신간 문학 등 희망 도서 120권을 기증했다. 2009년에 설립된 상하이희망도서관은 4000여 명의 교민들에게 도서 대출 및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작은도서관이다. 이번 기증은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작은도서관, 베이징 왕징 작은도서관에 이어 세 번째 해외 기증이었다. 국내 기증으로는 지난 8월 충남 천안시 소재 ‘성성호수도서관’에 신간 문학 등 희망 도서 120권을 기증하였다. 2018년에 설립된 성성호수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 한정된 소액의 운영비로 도서 구입부터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까지 진행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책수레봉사단에 도움을 요청하여 기증이 진행되었다. 이번 기증은 중국 ‘상하이희망도서관’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기증이었으며, 책수레봉사단은 이메일 접수(booksure@korea.kr)를 통해 봉사 기관을 모집하고, 대상은 국내외 복지시설, 작은도서관, 아파트 문고 등이다.

문의 책수레봉사단 02-3483-8846



상하이희망도서관 도서 기증 사진.

news

국내외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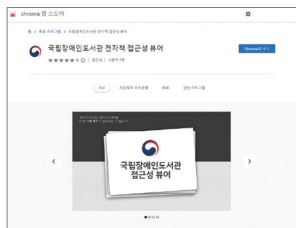
1 장애인의 전자책 독서 생활 편리해진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이 웹브라우저에서 전자책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 접근성 뷰어'를 개발하여 8월 25일(목) 공개하였다. 현재 국내에 서비스되는 전자책(e-book)을 보려면 전자책 제작사 또는 유통사에서 개발한 전용 뷰어만을 활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뷰어는 금년 5월에 제정된 '독서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국가표준(KS)에 따라 제작된 최초의 전자책 뷰어(EPUB Reader)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책 파일(epub)을 불러오면 자동으로 본문의 내용을 소리로 읽어주고, 메뉴 이동과 이미지, 주석, 수식 등의 객체 정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독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배포된 뷰어는 구글 크롬 웹스토어(Google Chrome Web Store)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추가기능(Microsoft Edge Addons)에서 '전자책 접근성'으로 검색한 후 웹브라우저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서울시 마포구, 메타버스로 만나는 도서관 현장서비스 개시

마포구가 9월 1일(목)부터 마포중앙도서관을 통해 메타버스(Metaverse) 도서관 현장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메타버스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일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마포구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구민 중심의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을 활용해 책이 있는 자료 열람실 현장을 중심으로 실제 도서관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 또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 직원들이 제작에 직접 참여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메타버스 접속 방법은 마포중앙도서관 누리집(<https://mplib.mapo.go.kr/mcl/>)에서 가상도서관(게더타운)으로 들어가면 된다.

국내 도서관



1 Google Chrome 서비스 화면.



2 마포중앙도서관 메타버스 자료열람실 모습.



3 2022 인천 독서대전 포스터.



4 '도서 요약 알림톡 서비스' 신청 안내문.

3 인천 최대 규모 독서 축제 '2022 인천 독서대전' 24일 개막

인천광역시시는 9월 24(토)일부터 10월 2일(일)까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서점, 지역 문화공간에서 '2022 인천 독서대전'을 개최한다. 인천 공공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2015년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독서대전' 이후 개최되는 인천 최대 규모의 독서 축제다. 행사는 '인천, 백 년의 향기를 품다'를 주제로 공공도서관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도서관과 시민의 거리를 좁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인천 독서대전 기간 동안에는 시민들이 독서문화 행사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배다리 책피움 한마당', 미추홀도서관 '다북다북 인천 페스티벌', 화도진도서관 '배다리 책사랑 일일화페 축제'와 연계해 독립서점 북 큐레이션 전시, 독서캠핑, 도서관 등 더욱 다양한 독서체험 행사도 제공할 예정이다.

4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도서 요약 알림 서비스 제공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이 9월 5일(월)부터 경기교육통합도서관 정회원을 대상으로 '도서 요약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인문, 경제, 자기 계발 등 5개 분야의 도서 핵심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에게 매주 1회 알림톡을 발송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교육통합전자도서관 누리집(lib.goe.go.kr/elib)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도서 요약 정보와 함께 경기교육도서관의 다양한 소식도 만나볼 수 있다.

5 미국의회도서관, 저작권 온라인 기록 시스템 공개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LC)과 미국저작권청(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이 2년에 걸친 소프트웨어 개발과 대규모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 기록 시스템'(Copyright Recordation System, CRS)'인 '엔터프라이즈 저작권 시스템'(Enterprise Copyright System, ECS)을 공개했다. 미국저작권청은 계속해서 종이 서류 형식의 문서를 받지만 일반 대중은 이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편리한 온라인 결제, 진행 상태 추적 및 알림 시스템을 통해 더욱 쉽고 빠르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더욱 빠르게 기록을 처리할 수 있다. 기록 외에도, 시스템은 등록, 공개 기록, 라이선스를 포함한 저작권청에서 제공하는 모든 범위의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포함할 예정이다.

6 IFLA 회귀·특수장서분과, 전 세계 설문 조사 시작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 회귀·특수장서분과(Rare Books and Special Collections Section, RBSC)는 특수장서의 다양한 가치를 측정하고 식별하기 위해 전 세계에 어떤 표준, 규범, 관행, 법률, 투자 수익(Return On Investment, ROI) 연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문화유산 기관이 옹호 활동(advocacy)을 위한 도구로서 특수 장서의 가치 측정을 원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질문과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가이드가 될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행하기 위함이다. 설문조사는 올 10월 30일까지 진행되며 IFLA 웹사이트에 게재된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news

국내외 도서관

국외 도서관

7 국제도서관협회연맹, 5주년 맞이한 '세계도서관지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은 올해로 세계도서관지도(Library Map of the World, LMW)를 공개한 지 5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5년 동안 LMW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도서관 관련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기여 사례를 지원하는 자료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또한 LMW 이용자가 각 국가의 도서관 환경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전체 국가 개요를 추가했다. 현재 LMW는 국가 수준의 도서관 통계 데이터, 국가별 개요, SDGs에 대한 대처 사례의 세 가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135개 국가 및 지역 도서관 데이터, 28개의 완전한 국가별 개요, 그리고 56개의 SDGs에 대한 도서관의 대처 사례를 게재하고 있다.



7 출처 : IFLA



8 출처 : ARL



9 출처 : UK Web Archive homepage

8 미국 연구도서관협회, 도서관 관련 저작권 정보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 개설

미국 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는 디지털 시대에 도서관 관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도서관 지도자, 실무자 및 옹호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했던 누리집(arl.org/know-your-copyrights)을 공개했다. 이곳에서는 정보에 대한 동등한 디지털 접근을 촉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미국 저작권법하에서 도서관으로 부여한 권리가 어떻게 주장될 수 있는지 고려 중이다. 또한 새로운 누리집에서는 법원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디지털 권리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일련의 새로운 자료를 제공한다.

9 웨일스국립도서관,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 웹사이트 아카이빙

웨일스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Wales, NLW)은 2004년부터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에 관한 웹사이트를 아카이빙해 왔다. 컬렉션은 현재 700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보관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는 영국 웹 아카이브 내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한 특별 컬렉션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웹사이트 컬렉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웨일스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헌법상의 의무를 지닌 최초의 국가 중 하나다. NLW가 보존하고 있는 웹사이트들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배치, 에너지 효율, 연료 부족 감소, 그리고 웨일스를 세계 3대 재활용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진전을 보여준다.



국내외 도서관 소식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월드라이브러리(librarian.nl.go.kr)에서 확인하세요.

국제표준이름식별자 ISNI

글 이혜민 그림 보리보리쌀

